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 의사결정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호 준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 의사결정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봉 주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호 준

박호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월

위 원 장 _____ 유 조 안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하 정 화 _____ (인)

위 원 _____ 이 봉 주 _____ (인)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WFC:work-family conflict)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이 조절변수로 기능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의하면, 직장이나 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은 가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관계는 단선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어떤 대처자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부부 및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관계는 개인차원의 대처보다 ‘부부공동대처’(dyadic coping)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부부공동대처’로서의 ‘공동의사결정’이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완충하는지 분석하여, 이것이 ‘긍정적인 대처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자료로 ‘여성가족패널’(KLoWF :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의 제4차년도(2012)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 으로 총 1537케이스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에 대해서, 독립변수로서는 ‘일-가족 갈등’(WFC)을 각각 ‘일-가족 간섭’(WIF: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과 ‘가족-일 간섭’(FIW: family interference with work)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조절변수’는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수준을 점수화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소득, 학력, 연령, 직업종류, 주관적 건강, 가사만족도, 종교유무, 미취학자녀유무, 부부의 공동활동빈도, 남편학력, 남편일자리유무를 설정하여 교란요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은 둘 다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일-가족 간섭’(WIF) 영역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완충하는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가족-일 간섭’(FIW) 영역에서는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가족 갈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 갈등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이 것이 ‘삶의 질’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 갈등이 어떠한 기제를 통하여, 즉, 어떤 조절변수와 매개변수를 통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서 ‘대처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연구는 ‘공동의사결정’이라는 ‘부부공동대처’ 전략이 ‘일-가족 간섭’(WIF)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완충하는 조절변수임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부모교육, 자조모임, 상담 등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근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을 위한 이론적 기준을 확립하며,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기혼취업여성, 일-가족 갈등, 결혼만족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 부부공동대처, 조절효과,

학 번 : 2005-20176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목적	5
제 3 절 연구대상과 분석방법	6
제 4 절 논문의 구성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9
제 1 절 ‘결혼만족도’의 개념과 영향요인	9
제 2 절 ‘결혼만족도’와 ‘일-가족 갈등’의 관계	14
제 3 절 ‘결혼만족도’, ‘일-가족 갈등’, ‘부부 의사결정방식’ 의 관계	22
제 3 장 연구모형과 가설	30
제 1 절 연구모형	30
제 2 절 연구가설	32
제 3 절 변수의 설정	33
제 4 장 연구방법	45
제 1 절 분석자료 및 대상	45
제 2 절 분석방법	47
제 5 장 분석결과	51
제 1 절 빈도분석	51

제 2 절 상관관계분석	55
제 3 절 회귀분석	60
제 6 장 결 론	68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68
제 2 절 해석 및 함의	72
제 3 절 연구의 한계	78
참고문헌	81
Abstract	98

표 목 차

[표1] 연구모형	32
[표2] ‘일-가족 간섭’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35
[표3] 재구성한 ‘일-가족 간섭’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35
[표4] ‘가족-일 간섭’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37
[표5] 재구성한 ‘가족-일 간섭’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37
[표6] ‘공동활동빈도’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43
[표7] 재구성한 ‘공동활동빈도’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43
[표8] 빈도분석표(1)	52
[표9] 빈도분석표(2)	54
[표10] 피어슨 상관계수표	58
[표11] 회귀분석 결과	67
[표12] WIF와 FIW,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69
[표13] WIF와 FIW, 의사결정방식,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71

식 목 차

[식1] 통제변수 투입 모델	49
[식2] 독립변수(WIF, FIW) 투입 모델	50
[식3] 조절변수(의사결정방식) 및 상호작용항 투입 모델	5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핵가족과 산업화로 대표되는 근대사회의 도래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은 점차 해체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남성 가부장제에 기반한 'Bread-winner' 모델이 지배적이었으나, 근대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인 활동에 부부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Strong & Cohen, 2013).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부부 모두에게, 그리고 남성 배우자와 여성 배우자에게 각각 요구되는 사회적인 역할과 기대 역시 달라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부와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방식 역시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산업화를 경험한 미국에서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부부 사이의 권력과 의사결정과정의 점차 평등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y, Blanton & Gillard, 2005 ; Richmond, McCroskey & Roach, 2007)

이러한 근대화 양상은 우리 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난 반세기 동안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사회적 기대가 확산되어 왔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역시 사회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한편으로는 여권을 신장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여성의 자아실현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경제의 측면에서,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성장 동력의 감퇴를 막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평가된다(박인덕 외, 1987; OECD, 2012).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지난 10년동안에도 비록 완만할지언정 이런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3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6%로서, 2012년의 55.2%와 비교할 때 0.4%p 증가한 것이며¹⁾.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관련 조사가 재편된 199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55.6%)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7.6%에 비해서 22.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북유럽의 덴마크는 75.8%, 남유럽의 프랑스는 66.7%이었으며 미국은 67.6%이고, 주변국가인 일본 역시 63.4%로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통계청, 2013).

다른 비슷한 산업화 국가와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로는 기혼여성이 일과 양육, 가사를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적된다(황미라, 2011; 강은진, 20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2년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전체 회원국들 중에서 2위였으며²⁾ 이는 OECD 회원국들의 2011년 평균노동시간인 1,765시간과 비교할 때, 398시간(22.5%) 이상을 더 일하고 있는 것이다.³⁾ 그런데 기혼취업여성은 이에 더해 가정에서의 가사 부담이 더해진다. 200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에 의하면, 기혼취업여성의 가정관리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38분으로 남성의 가정관리시간 평균인 24분에 비해서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기혼취업여성들은 직업과 가사, 육아를 병행

1) 'e-나라지표' 중 '여성고용동향' 참조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7

2) “긴 노동시간·낮은 생산성이 성장 잡아먹는다” (서울경제신문, 2014.7.22.재인용)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07/e20140722173450120180.htm>

3)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중의 Key Employment Statistics 참조
<http://www.oecd.org/els/emp/howdoesyourcountrycompare-korea.htm>

하는데서 오는 시간 부족과 스트레스, 양육부담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미현, 2013; 강은진, 2012). 특히 기혼 여성의 '일-가족 갈등'은 자녀가 생기고 양육과 가사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다 높아진다. 2012년을 기준으로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5~29세일 때 71.6%로 가장 높고, 출산, 육아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인 30~39세는 약56% 정도까지 감소하며, 이후에 40대 초반부터 다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과 육아, 가사를 병행하기 힘든 우리 사회의 현실이 30대 기혼여성의 직장 포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통계청, 2013).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률은 결혼 전에 87.5%에 달했지만, 결혼 후에는 37.9%가 감소하여, 47.8%로 줄어들었으며, 첫째자녀 출산 전에는 31.0%로 다시 감소하고, 첫째 자녀 출산 후에는 25.4%로 더욱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유경, 2013). 따라서 기혼 취업여성들은 미혼여성들과 비교할 때,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이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단순직종에 근무하는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일-가족 갈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김영옥, 2013).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 속에서,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기혼 취업여성들에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이에 따라 기혼취업여성들의 '일-가족 갈등'에 대한 관련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일-가족 갈등'에 대한 연구들은 두 영역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이 갈등이 본인, 배우자, 가족, 직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에 주력해왔으며, 이 갈등이 어떤 메카니즘에 기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Ford,

Heinen & Langkamer, 2007). 따라서 최근에는 일과 가족 영역에서의 상충하는 역할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관련하여, 그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대처전략과 프로그램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결혼만족도’는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들과 연관되며,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안녕감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수단이고, 삶의 만족도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표이다(Caroll, 2012; 이여봉, 2010). 그런데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취업은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며(김미령, 2011), ‘일-가족 갈등’은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Amstad, Meier, Fasel, Elfering & Semmer, 2011). 그럼에도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일-가족 갈등’과 그 결과물로서의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대처자원’과 연관 지어서 분석한 논문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은 ‘부부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부부공동대처’(dyadic coping)의 한 방법이다. 부부가 가족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는지는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며(이정우, 강기연, 2001; 박은아, 이정우, 2005), 가족내 권력관계와 양성평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변수이기도 하다(박종서, 2013). 특히,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부부의 상호이해를 통해서 바꾸고 개선시켜나갈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이 ‘일-가족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부부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근거기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규명한 국내외 선행연구들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천현장에서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WFC:work-family conflict)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있어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이 '조절변수'(moderator)로서 기능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첫째 단계에서는 '일-가족 갈등'(WFC)의 두 가지 하위영역인 '일-가족 간섭'(WIF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과 '가족-일 간섭'(FIW :family interference with work)이 기혼취업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겠다. 두 영역은 '결혼만족도'와 모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역일 수도 있으며, 또는 어떤 한 영역만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이 양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해보겠다.

둘째 단계에서는, 첫째 단계의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위의 연구모형에 조절변수로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을 투입하고, 이 때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은, '삶의 질'을 반영하는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 가정된다. 이에 대해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이 그 두

변수들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완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조절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일-가족 갈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부부 스트레스’에 대해서, ‘공동의사결정’이 ‘부부공동대처’ 자원으로서 기능하여, ‘일-가족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약화하고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이 ‘대처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이 입증된다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관련 프로그램들, 즉, 부부교육이나 역할연습, 자조모임 등에 있어서 ‘근거기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연구대상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으로 한정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자녀가 있는 기혼취업 여성은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전체 여성집단 중에서도 ‘일-가족 갈등’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이다(김영옥, 2013; 김유경, 2013). 둘째, 자녀 양육과 연관된 여성취업자들의 ‘일-가족 갈등’은 휴직, 퇴사, 직장 이동 등으로 이어지며, 경력단절 등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통계청, 2013). 셋째, 분석과정에서의 다양한 교란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 일자리의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일-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정도가 다르고, ‘결혼만족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여성취업자가 삶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 등은, 한편으로는 동시대에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에 따라, 처한 위치에 따라, 어떤 삶의 경험을 해왔는가에 따라서 이질적인 성격

을 지나기도 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둔 취업여성으로 분석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란변수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분석의 목적과 함의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한다. 이 분석방법은 위계적(hierarchical)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에 대해서 여러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첫번째 단계에서는, 이 모형에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여기에 조절변수로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을 투입하고, 이와 함께 ‘일-가족 간섭’(WIF)과 ‘의사결정방식’의 상호작용항, 그리고 ‘가족-일 간섭’(FIW)과 ‘의사결정방식’의 상호작용항을 변수로 투입하여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하겠다.

제4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한국사회 현실과 연관지어 서술하고, 연구목적과 연구주제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왜 연구자가 이 연구주제를 택하고 이 연구를 행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첫째 절에서는 연구의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를 정의하고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절에서는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와 독립변수인 ‘일-가족 갈등’(WFC)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일-가족 갈등’(WFC)에 대

해서 정의하고, 다음으로는 '일-가족 갈등'(WFC)의 영향요인들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결혼만족도'와 '일-가족 갈등'(WFC)이 어떤 기제에 의해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소개하였다. 셋째 절에서는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와 독립변수인 '일-가족 갈등'(WFC), 그리고 조절변수인 '부부의 공동의사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부부의 의사결정방식'과 '부부공동대처'(dyadic coping)에 대해서 정의하고, 다음으로는, '결혼만족도'와 '일-가족 갈등'(WFC)의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어서, 부부공동대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첫째 절에서 연구모형을 정립하고, 둘째 절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연구가설을 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셋째 절에서는 연구모형에 대해서 어떤 변수들을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는지를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방법을 기술하였다. 첫째, 분석자료인 '한국여성가족패널' 제4차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둘째, 분석방법으로 사용할 '조절회귀분석'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서 대상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투입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인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해 해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다시금 요약하고, 본 연구가 이론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천현장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결혼만족도’의 개념과 영향요인

1) ‘결혼만족도’의 개념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는 결혼적응도(marital adjustment), 결혼행복도(marital Happiness), 결혼성공(marital succession), 결혼안정성(marital stability), 결혼의 질(marital Quality) 등 유사한 의미를 가진 여러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김효민, 2010). 이 개념은 어떤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인 지위는 물론,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서적 측면, 건강상태 등의 생리적인 측면과도 관련되며, 배우자나 가족 간의 상호작용 패턴, 더 넓게는 사회적 지지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매우 복잡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Stone & Shackelford, 2007).

‘결혼만족도’는 성인 및 가족과 관련된 ‘삶의 질’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여러 긍정적인 결과들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에 그동안 심리학은 물론, 가족연구 및 사회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Carrol, 2012; Bradbury, Fincham and Beach, 2000). 예를 들어서 ‘결혼만족도’는 ‘직업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금지현, 김동심, 2014), ‘삶의 만족도’와도 높은 상관성이 있다(이여봉, 2010). 다른 한편으로, ‘결혼만족도’는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러하기에 유사하면서도 매우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에서 이여봉(2010)이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바를 따라서, ‘결혼만족도’를 협의로는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개

인이 부부라는 이자적(利自的)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선호'이며, 광의로는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 및 친족, 그리고 상황적 조건 등 결혼생활의 모든 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 기쁨, 즐거움, 만족 등의 주관적 감정'이라고 정의하겠다.

장휘숙(2008)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 첫째, 단일항목으로 된 평정척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대개 10점 척도를 사용하여 '결혼만족도'를 측정한다. 이 방법은 '결혼만족도' 측정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둘째, 다항목적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척도는 결혼생활적응의 여러 측면을 반영한 몇 개의 하위문항들로 구성된다. 이 방법은 결혼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반영하여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한 선행연구들 중에서는 류임량(2009)의 연구가 단일평정척도를 사용하여 '결혼만족도'를 측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여봉(2010)의 연구는 '결혼만족도'를 관계만족성(3문항)과 생활만족성(1문항)의 두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다항목적도를 만들어 연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결혼만족도'와 '영향요인'의 상관관계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둘째, 소득 등의 경제적 요인, 셋째, 성격, 정서, 인지 등의 개인적인 특성, 넷째, 남편이나 자녀와 같은 가족의 특성과 이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질 등을 포괄하는 가족 요인, 다섯째, 사회적 지지나 사회자본, 신뢰 등의 사회적 요인, 여섯째, 월가족 경험이나 직장생활 만족도 등의 기타 요인 등이 있다(이수아, 2010; 김효민, 2010; 윤수란, 2013; 김효민, 박정윤, 2013). 즉, '결혼만족도'는 개인, 가족, 그리고 친족, 직장, 마을공동체, 제도 등의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과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Bradbury, Fincham & Beach, 2000)

‘결혼만족도’와 영향요인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 두 개념들이 사회적,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이에겐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속기간, 생활주기 등을 들 수 있다. 각 요인들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연령은 생애발달단계나 출생집단 효과를 볼 수 있는 지표이고, 결혼지속기간은 가족발달단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지표이지만 두 지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이여봉, 2011). 관련 연구에 의하면 결혼 초중기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이후에 점차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고, 반면에 결혼 초기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연구들도 있어서 연구 결과들이 상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윤수란, 2013).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대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때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김호민(2010)에 따르면 결혼주기에 따라 결혼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들 중에서, 80년대까지는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신혼초에 가장 높고 이후 연령과 결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U자형의 커브를 그린다는 연구, 즉, 20대에 해당하는 결혼초기나 50대 이후에 결혼만족도가 높고, 30~40대의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가 많아진다. 이는 기혼 여성에게 부과되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일-가족영역에서 이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다른 영향요인에서도 발견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즉 ‘맞벌이 유무’와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2000년대 이전의 연구에서는 맞벌이로 인해서 부부갈등을 야기할 소인이 많아지므로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보고한다(한경미, 1995).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맞벌이를 통해서, 부부가 공통의 직장 경험과 육아 등을 함께 하므로 오히려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이은희, 2002; 조성은, 정지영, 윤소영, 2006). 또한, 성역할 태도 역시, 이전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박태온, 1983),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이지 않을수록, 즉, 평등하고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주현, 문영주, 2010). 즉 '결혼만족도'와 그 영향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그 시대의 사회적인 기대 및 가족 역할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며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와 영향요인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그 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양이나 시간 보다는 부부 사이의 상호소통과 합의에 기반하여 형성된 주관적인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유계숙(2010)은 가사분담이 기혼여성의 일-가족 전이(Spillover)와 결혼생활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에 있어서 부부 사이의 불균등함은 그 자체만으로 결혼생활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부인이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 그리고 남편의 월평균 급여와 같이 부인이 남편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는가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우와 강기연(2001)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부부역할의 공평성 여부와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부부역할을 공평하게 수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부부역할을 공평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클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증대하였다. 이런 경향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김미령(2011)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평일 가사분담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나, 주말 가사분담은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기혼취업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의 평일 가사 참여에 대한 기대보다는 주말 가사 참여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가 더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영향요인 외에, 선행연구에서 결혼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영향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 여 모두 교육수준이 높으면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도 높았다(조혜선, 2003). 둘째, 경제적 배경으로서는 가구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남편의 실직 등으로 인한 가구소득의 감소는 여성의 가정 내 권한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명숙, 옥경희, 2014). 셋째, 부부가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의 양은 결혼만족도에 큰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행하는 여가활동의 빈도였다(이여봉, 1999). 넷째, 기존 연구는 건강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결혼이 건강에 미치는 연구가 더 많았지만, 관련 분석에 따르면 본인이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결혼만족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여봉, 2010). 다섯째, 정신 건강이나 개인의 내적 성향 역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나, 자아 존중감이 높으면 '결혼만족도'도 높다. 또한 원가족과 행복한 가족생활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낄 확률이 더 높았다(이수아, 2010 ; 김효민, 2010). 여섯째, 자녀는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정현숙, 1996 ; 정은애, 2008).

제2절 ‘결혼만족도’와 ‘일-가족 갈등’의 관계

1) ‘일-가족 갈등’의 개념

‘일-가족 갈등’(WFC:work-family conflict)이란 ‘일과 가족, 두 생활영역에서의 역할 압력이, 몇몇 측면에서 상호간에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정의된다(Greenhaus & Buetell, 1985). 이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한 Khan, Wolfe, Quinn, Snoek & Rosenthal(1964; Cao, 2011에서 재인용)은 ‘한정된 자원을 가진 개인에게 다중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 그 개인에게 한계 초과 상황을 초래한다’는 ‘역할 압력 이론’(role-strain theory) 또는 ‘결핍 관점’(scarcity perspective)에 기반하여, ‘일-가족 갈등’을 역할 갈등의 특수한 한 형태로 이해하였다(Cao, 2011 ; Huang, 2010).

서구에서 이루어진 초기의 연구들은, ‘일-가족 갈등’을 주로 기혼취업여성에게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보았고 ‘일’ 영역과 ‘가족’ 영역을 두 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보았으며, 별개의 두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중적인 역할이 상호 충돌과 불균형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또한 재정적인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일’ 영역이 보다 중요하기에 직장생활을 위해서 가정생활을 희생할 수는 있지만, 그 역의 관계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아서, 주로 ‘일’ 영역이 초래하는 ‘가족’ 영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관심을 기울였다(Huang, 2010). 그러나 이후에 연구들이 심화됨에 따라서 ‘일’ 영역과 ‘가족’ 영역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고 보고 있다. Frone(1993)은 이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에서, ‘일-가족 갈등’이 실은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고 양방향적인(bidirectional) 영향을 주고받는다 고 주장하여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을 확립하였다. 이 두 개의 하위영역은 첫째, ‘일-가족 간섭’(WIF:work interference with family)으로, ‘일’ 영역에서의 역할

압력으로 인해서 가정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야근이나 휴일근무처럼 직장에서의 역할이 과중하여, 가정에서 요구되는 역할인 가사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는 '가족-일 간섭'(FIW:family interference with work)으로, 이는 '가족 영역에서의 역할 압력으로 인해서 일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 양육이나 가사에 대한 부담, 혹은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해서, 직장에서 요구받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에 따르면,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두 개념은, 일부 중첩되는 바가 있을지언정, 독립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변수들이다(Amstad et al., 2011). 예를 들어서, Frone, Russell, 그리고 Cooper(1992)의 연구에 의하면, 직장 스트레스와 직장 업무가 증대할수록 '일-가족 간섭'(WIF)이 증대하고 가정스트레스와 가사노동이 커질수록 '가족-일 간섭'(FIW)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양자는 다른 영향요인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인 이진숙과 신지연(2010)의 연구에서도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일 간섭'(FIW)이 커졌으며,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일-가족 간섭'(WIF)이 증대되어 이런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Amstad와 동료들(2011)은 '일-가족 갈등'(WFC)을 다룬 427개의 논문을 메타 분석하여,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일'과 '가족', 그리고 '그 외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부터 주목을 받았던 '일-가족 간섭'(WIF) 뿐만 아니라 '가족-일 간섭'(FIW) 역시 3개의 영역에 두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영역의 갈등은 서로 전이(spillover)되어 다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영역 자체와 관련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matching)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연구에 있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연구로까지 ‘일-가족 갈등’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또한 어떤 개인이 다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중적인 역할 수행은 때로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초래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보람을 키우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일’과 ‘가족’ 영역에서의 다중적인 역할 수행 역시 때로는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 변화에 따라서 최근의 연구들은 부정적인 전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전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⁴⁾(Allen et al., 2000 ; Bowers et al., 2014).

2) ‘일 -가족 갈등’의 영향요인

‘일-가족 갈등’(WFC)에 대해서, Greenhaus & Buetell(1983)의 고전적인 연구에서는 시간, 압력, 행동양식의 3가지 유형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시간에 기인한 갈등’(time-based)은 구체적으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이다. ‘가족’과 ‘일’ 영역은 역할을 요구하는 시간대와 시간의 양이 있으므로, 한 개인은 시간사용에 있어서 두 영역 사이에서 상충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4) ‘일-가족 갈등’(WFC:work-family conflict)은 상대적으로 일과 가족, 두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관련 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최근에는 일과 가족 영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까지 포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가족 간섭’(WIF) 및 ‘가족-일 간섭’(FIW)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일의 촉진’(WEF:work enhancement with family)이나 ‘일에 대한 가족의 촉진’(FEW:family enhancement with work)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고(Wadsworth and Owens, 2007), ‘전이(spillover)이론’에 입각하여, 일과 가정 영역 상호간에 ‘긍정적 전이’(positive spillover)와 ‘부정적 전이’(negative spillover)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Grzywacz and Marks, 2000).

일정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집에 자녀가 아픈 상황이 발생하여 낮시간에 자녀와 함께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압력에 기인한 갈등’(strain-based)은 두 영역에서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압력이 서로 상충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두 영역이 모두 많은 시간 투입을 필요로 하고, 치밀하고 높은 완성도의 결과물을 만들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영역의 활동 시간대가 겹치고 그 조정이 힘들수록 그 개인은 더 큰 긴장과 압력에 노출되며 이 두 영역에서의 압력이 갈등을 야기한다.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는 대입 수험생 자녀가 있어서 성공적인 대학입학을 위해 어머니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동시에 직장에서는 판매실적의 급격한 성장을 위해 일에 매진할 것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행동에 기인한 갈등’(Behavior-based)은 위의 두 영역과는 다소 다른 것인데,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행동을 요구하고 이 속에서 상충하는 행동방식들이 서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엄격할 것을 요구받지만, 가정에서는 역으로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공감대가 중요할 때, 두 영역에서 요구하는 행동방식이 다른 데에서 개인은 역할 갈등을 고민하게 된다.

위에서 정리한 요인들 이외에 다른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첫째, ‘일’과 관련된 영향요인으로는 슈퍼바이저나 동료의 지지, 노동시간, 노동부하량 등의 다양한 요인이 ‘일-가족 갈등’에 영향을 준다. 집단, 시점, 맥락에 따라 때로는 상이하다고까지 볼 수 있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지만, 노동시간의 경우, ‘일-가족 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일반적이다. 또한 임금과 관련된 만족도가 낮다면, ‘일-가족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에 대한 통제권한이 더 많을수록 ‘일-가족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이나 육아휴직 같은 복지

제도도 ‘일-가족 갈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윤석, 2010 ; 김성경, 2011 ; 장윤옥, 정서린, 2012). 둘째, ‘가족’ 관련 영향요인으로 는 가족의 지지, 양육시간, 양육 부하량 등이 ‘일-가족 갈등’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녀의 수가 많으면 그리고 미취학 자녀의 존재는 ‘일-가족 갈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연령, 교육년수, 성역할 태도 등이 ‘일-가족 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다(이윤석, 2010 ; 김성경, 2011 ; 이재림, 손서희, 2013).

3)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지난 한 세대동안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일-가족 갈등’은 직장을 비롯하여 본인, 부부, 가족 등 우리 삶의 광범위한 영역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가족 갈등’은 일 영역에 있어서, 낮은 직업만족도를 초래하고 잦은 결석이나 이직을 초래하는 등 직장 및 조직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일-가족 갈등’은 업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장에서 경험하는 직업 스트레스나 우울감도 증대시킨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일-가족 갈등’은 가족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수준의 갈등을 경험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고, 자존감이 저하되며, 삶의 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en et al., 2000; Ford et al., 2007; Michel et al., 2009; Hill et al., 2011; Amstad et al. 2011).

이 중에서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llen et al.(2000)은 ‘일-가족 갈등’이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분석한 선행연구 67편에 대해서 메타분석을 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일-가족 갈등’은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Ford et al.(2007) 역시 120편의 관련 선행연구를 메타분석하여 ‘일-가족 갈등’과 ‘삶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였는데, ‘일-가족 갈등’이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Amstad et al.(2011)은 ‘일-가족 갈등’(WFC)을 다룬 427개의 논문을 메타 분석하여 이 갈등이 ‘일’ 영역, ‘가족’ 영역, 그 외의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서도 ‘일-가족 갈등’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들이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 혹은 ‘삶의 질’ 사이의 단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두 변수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메카니즘을 분석하거나 다양한 조절효과,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대처자원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로 나아가고 있다(Ford, Heinen, Langkamer, 2007). Carroll(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일-가족 갈등’이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는데, 이 두 변수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사소통방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대화법처럼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는지가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며, 따라서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이 ‘대처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Liu와 Cheng(2014)은 361명의 중국인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일-가족 갈등’과 배우자의 심리적 긴장 및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공감’의 조절효과를 연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내의 ‘공감’은 남편의 ‘일-가족 갈등’이 아내의 심리적 긴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였다. 또한 아내의 ‘공감’은 남편이 직장생활에서 얻는 긍정적인 경험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antanen et al.(2011)은 ‘일-가족 갈등’과 ‘삶의 질’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대처전략들(problem-focused, emotion-focused, avoidance focused)이 조절 변수로 기능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4) ‘일-가족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족-스트레스 모델’(family-stress model)이 큰 도움을 준다. 이 이론은 생태학적 관점에 스트레스 이론을 접목하여 부부 및 가족의 역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족 스트레스’란 ‘가족이 내/외적으로 직면한 상황과 이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사이에 생기는 불일치의 결과’라고 정의된다(김안자, 2010). 가족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유발요인은 가족관계를 통하여 가족 내의 스트레스로 전이되고 가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가족은 그로 인한 부적응 상황과 긴장,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상황에 적응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Weber, 2010).

Randall & Bodenmann(2008)은 부부,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한다. 첫째, 스트레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둘째, 스트레스는 급성과 만성에 있다. 셋째, 스트레스는 중심적인(Major) 것과 부차적인(Minor) 것이 있다. 여기서 중심적인 스트레스는 실직, 의미있는 타인의 죽음, 사고 등을 지칭한다. 반면에 부차적인 스트레스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가사와 양육부담, 작업장에서 경험하는 적대, 갈등은 물론, 약속을 잊거나 늦는 것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건을 포괄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 스트레스 모형’에서는, 생애주기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ex: 친지의 죽음, 큰 질병, 이혼, 실직 등)에 주목해 왔으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부차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중요한 사건 외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지속적이고 부차적인 스트레스 역시, 삶에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우현주, 유계숙, 2013 ; Bodenmann et al, 2007). 예를 들어, ‘일-가족 간섭’(WIF)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족 내의 문제로 전이되어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역으로 ‘가족-일 간섭’(FIW)은 가족 내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로 전이되어, 결과적으로는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가지는 대처자원에 따라서 그 적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Walsh, 1996). 이런 관점에서 ‘가족 스트레스’ 이론에 입각한 여러 하위모형들은 모형의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Randall & Bodenmann(2008)에 의하면, ‘가족 스트레스’이론의 하위모델들인 McCubbin의 ‘Double ABCX 모델’과 Bodenmann의 ‘가족-스트레스-이혼 모델’은 ‘대처’를 조절변수로 보고 있고, Karny의 ‘취약성 스트레스 적응 모델’은 대처를 ‘적응과정’(adaptation process) 변수 안에서 매개변수로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델이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족 내에서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대처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 ‘대처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적응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적응’의 핵심은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같은 환경이 아닌, 부부가 가지고 있는 ‘대처자원’인 것이다.

제3절 ‘결혼만족도’, ‘일-가족 갈등’, ‘부부 의사결정방식’의 관계

1) ‘부부 의사결정방식’의 개념과 특성

부부간의 ‘의사결정’이란 ‘가정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최선의 행동방향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박은아, 이정우, 2005). 부부 의사결정은 가족내 권력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가족내 권력관계는 ‘부부관계의 형평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에 가족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박종서, 2013 ; Rosenbluth, Steil & Whitcomb, 1998).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은 생활영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신화용과 조병은(2009)은 재미교포 부부를 대상으로 의사결정방식을 연구하였는데, 자녀양육, 가사노동, 정서적 지지 등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여성에게 있었고 자기계발 영역은 남성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부부간에 역할 영역이 문화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치관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방식이 영향을 받았다. 다만, 여성들은 혼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영역에 대해서 남성배우자가 함께, 좀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조영숙 등(2007)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부부의 의사결정구조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역시, 성별에 따라서 의사결정 영역은 분리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및 농사, 사회활동 관련 사안은 남성이, 반면에 자녀 교육이나 생활비는 부인의 권한이 더 컸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연령, 소득,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유사하였다. 안승철과 김년희(1996)는 구매의사결정에서 부부의 영향력에 관해서 연구했는데, 가구처럼 생활재에 해당하는 것은 부부 중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며, TV나 승용차에 대해서는 남성이 더 큰 의사결정권한을 가졌다. 반면에, 집처럼 재산 상의 비중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각 생활영역에 따라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을 조사할 때는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기 보다는 여러 영역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Blood와 Wolfe(1960)는 '부부 의사결정'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에서, 731명의 도시거주 부부와 178명의 농촌거주 부부를 인터뷰하였는데, 남편의 직업선택, 가족휴가, 부인의 취업, 주택구입, 병원선택, 식료품 구입한도, 자녀양육, 자동차 구입이라는 8가지 영역에 대해서 부부 중에서 누가 의사결정을 주로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다른 연구들도 이런 경향을 띠는데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는 일상생활비, 주택매매, 투자 및 재산 증식, 자녀교육의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박종서, 2013 ; 김승권 외, 2012), '전국가족실태조사'에서는 자녀교육, 주택구입, 투자 및 재산관리, 생활비 지출, 배우자의 취업 및 직장이동의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조희금 외, 2010). 또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자녀교육, 재산관리, 생활비 지출의 3개 영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전기택 외, 2013).

Blood & Wolfe(1960)는 위에서 언급한 선구적인 연구를 통하여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을 '아내주도형'(wife-dominant type), '남편주도형'(husband-dominant type), '독립형'(autonomic type), '융합형'(syncretic type)이라는 4가지 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아내주도형'과 '남편주도형'은 부부 중 한쪽에 치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독립형'은 부부가 독자적으로 각각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이고, '융합형'은 양자가 상의하여 함께 의사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은 의사결정방식의 유형화를 위하여 첫째, ‘상대적 권위’ 점수 (relative authority)를 산출하였다. 남편이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5점,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를 3점, 아내가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한 뒤에 8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남편에게 의사결정권한이 집중된 정도를 수치화하였다. 둘째, ‘권력공유정도’(degree of shared power)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부가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3점, 주로 배우자 중 한명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2점, 전적으로 배우자 중에서 한명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1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다시 8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그리고 두가지 기준을 매칭하여 4개의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상대적 권력’의 점수가 낮으면 ‘아내지배형’이며 높으면 ‘남편지배형’으로 분류되고, 중간층은 ‘권력의 공유정도’에 따라서 점수가 높으면 ‘융합형’, 낮으면 ‘자율형’에 속하는 것이 된다(윤현봉, 1985; 김오남, 2006).

2) ‘부부 의사결정방식’의 영향요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부 ‘의사결정방식’이 가족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인식됨에도,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부부권력 혹은 부부간 의사결정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의외로 적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이정순, 박성연(1991)은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80년대 이전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하였다. 이에 의하면 부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가족형태와 가족생활주기 등이 의사결정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부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사무, 전문, 관리직일수록 의사결정을 부부가 함께 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고,

가족형태가 핵가족이며 아직 결혼한지 얼마 안된 부부일수록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조영숙과 동료들(2007)이 90년대 이전에 발표된 관련 연구들을 정리한 바와도 유사한데 이 연구에 의하면 첫째, 부부의 학력이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이 높으면 남편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부인의 학력이 높으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부부의 연령이 젊을수록,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부부가 함께 상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비중이 높았다. 부부의 결혼지속년수가 짧고, 여성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융합형에 가까워지며, 젊은 세대로서 평등한 가족가치관에 보다 익숙하고 여성이 사회경제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이다.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양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의사결정 유형 중에서, 부부가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할 때,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Bartley et al., 2005). 또한 김오남(2006)이 Coleman & Straus(1990), Scanzoni(1982) 등의 선행연구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이 불평등할 때 갈등이 가장 높았고, 평등한 부부에서 갈등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가 의사 결정에 대해서 합의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갈등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우지혜(2014)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부부가 의사결정을 함께 할수록 결혼생활만족도 역시 높아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정우, 강기연(2001)의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부부에게 있어서 의사결정의 공평성은 가정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의사결정이 실제로 공평하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의사결정이 공평하게 이루어

진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아 등(2005)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부부의 가족생활만족도와 부부의 공동 의사결정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노인부부 간에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참여가 활발할수록, 가정생활만족도 역시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부의사결정’이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의사소통 행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결혼만족도’를 이루는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얻는 정서적인 교류이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됨으로서 자원의 배분이나 가족문제의 해결과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Bell, Daly, Gonzalez, 1987). 그런데 의사소통은 ‘백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며, 의사소통방식이라는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영향받게 되고 이는 권력관계 등에 의해서 영향 받는다. 따라서 부부의 의사소통은 어떤 의사결정방식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변이를 보이게 된다.(Richmond, McCroskey and Roach, 1997) 이런 점에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 즉 가족 내에 의사결정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는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부부가 자원의 배분이나 어떤 행위에 대한 선택을 해야할 때,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의가 원활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상호간의 오해가 적어지며,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부부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란 결국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가족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결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은 가족의 안정성을 증대할 수도 있고 또는 가족에게 트라우마나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Blood & Wolfe, 1960; Richmond, McCroskey and Roach, 1997 ; Anderson, 1992).

다른 한편으로 부부의 가족생활도 결국 ‘예산’ 및 ‘자원’ 제약 하의 행동이다(Becker, 1981). 가족의 외적/내적인 위험요인을 방어하고, 가족 공동의 목표(행복)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예산과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함께 할수록, 가족 전체 혹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가족 공통의 비전에 부합하게 예산과 자원을 적절하게 재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은 ‘부부공동대처’(dyadic coping)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부부공동대처’란 ‘부부 모두 혹은 부부 중 한명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Bodenmann, Meuwly, Bradbury, Gmelch, & Ledermann, 2010). 즉, 부부가, 분절적 개인이 아닌 하나의 단위로서, 만성질환처럼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우리("we")의 문제로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공동대처’의 중요한 요소는 첫째, 그 문제에 대해 부부 공통의 이해를 하는 것이며, 둘째, 식사나 음식, 일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것이다(Heru at al, 2013).

그렇다면, 이제 ‘일-가족 갈등’에서 ‘부부공동대처’가 왜 중요한지를 논의해보자. 그것은 ‘부부공동대처’가 ‘부부스트레스’(dyadic stress)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전략이기 때문이다. ‘부부스트레스’⁵⁾란 개인적

5) ‘가족 스트레스 모델’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동안 스트레스 요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의되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스트레스를 부부의(dyadic) 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부부공동대처’를 중시하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꾸

인 스트레스를 넘어서, ‘부부의 긴밀한 관계에 기반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즉, 부부로서 어떤 사건을 함께 경험하여 공동의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하고, 부부 중의 한명이 경험한 스트레스이지만, 부부의 친밀성을 기반으로, 다른 배우자나 가족에게 전이되고 확산되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한다(Randall & Bodenmann, 2009).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부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배우자만의 개인적인 대처도 중요하지만, ‘부부공동대처’가 더 중요하며 효과적일 수 있다(Bodenmann, et al., 2010). ‘일-가족 갈등’은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직장 혹은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다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쉽게 전이되고 확산된다는 점에서, ‘부부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Bodenmann과 동료들(2006)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의 긍정적인 공동대처는 결혼기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독일 부부 90쌍에 대한 2년간의 추적조사에서 긍정적인 ‘부부공동대처’(dyadic coping)를 할수록 결혼의 질이 높아짐을 입증하였다.

4)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에서, ‘부부공동대처’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렇다면, 이제 ‘부부공동대처’는 ‘일-가족 갈등’ 및 ‘결혼만족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본 연구에서는 이를 Randall & Bodenmann(2009)의 견해에 입각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Bodenmann의 ‘스트레스-이혼 모델’(stress-divorce model)에 의하면, a)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b) 부부 의사소통의 질을 낮추거나, 공동활동의 빈도를 낮추며, 부정적인 인성을 표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c)결혼만족도를 낮추게 되고, d)이로 인해 이혼

준히 축적되어 왔다(Randall and Bodenmann, 2009).

등의 더 큰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이 때 ‘부부공동대처’는 부정적인 일상 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변수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Bodenmann, Meuwly, Bradbury, Gmelch, & Ledermann(2010)의 연구는 스트레스와 언어폭력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대해 ‘부부공동대처’가 조절변수로 기능함을 검증하였다. 또한 Bodenmann & Atkins(2010)의 연구는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있어서, ‘부부공동대처’가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Bodenmann의 ‘스트레스-이혼 모델’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부공동대처’를 조절변수로 설정할 것이다.

‘부부공동대처’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현주 & 유계숙(2013)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Bodenmann의 이론에 입각하고 있으나, ‘부부공동대처(지지적, 협력적, 부정적)’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와는 이론 구성 및 분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 3 장 연구모형과 가설

제1절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단계는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이 ‘결혼만족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과정이다. 둘째 단계는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이 이 관계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발휘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모형 수립을 위해서 먼저,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연구에서 사용하는 회귀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양 변수간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이다. 따라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연구모델과 이론적 가정, 선행연구 등에 의거하여 결정해야한다(채서일, 2013).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일부 연구들에서는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인 ‘일-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중의 하나로 보고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장운옥, 정서린, 2012). 반면에 다른 연구들은 ‘결혼만족도’를 ‘일-가족 갈등’의 결과(outcome)로 보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Amstad et al., 2011; Carroll, 2012). 본 연구에서는 ‘가족-스트레스 모형’에 기반한 선행연구들(Bodenmann, Ledermann & Bradbury, 2007; Karney, 2007)과 Amstad et al.(2011)의 견해를 따라서 ‘결혼만족도’를 ‘일-가족 갈등’과 같은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영향 받는 결과(outcome)로 설정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갈등’을 독립변수로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연구모형을 구성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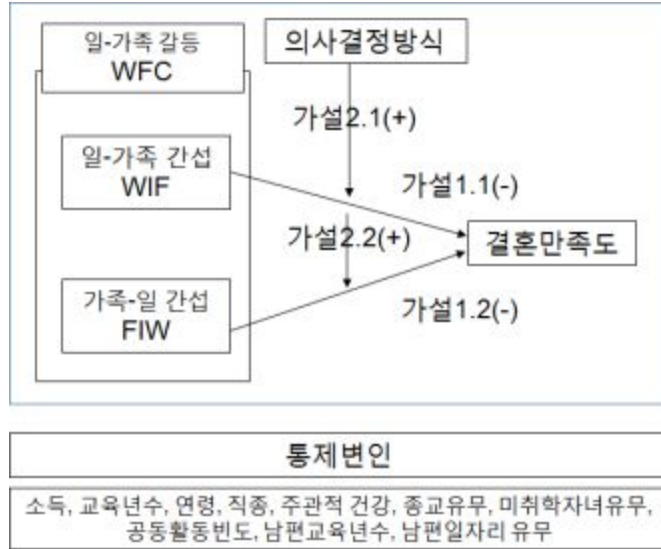
모델 설정을 위해서, 다음으로는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을 어떤 변수로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을 ‘조절변수’(moderator)로 볼 수도 있고, ‘매개변수’(mediator)로 볼 수도

있으며, 별도의 독립변수로 볼 수도 있다.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의 방향이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반면에 매개변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조절효과에 있어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조절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반드시 인과관계를 전제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개효과에 있어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그리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회과학연구에 있어서 변수는 매개변수로서의 성격과 조절변수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Bodenmann의 견해를 따라서 '부부공동대처'를 조절변수로 보았으며(Randall & Bodenmann,2009) '부부공동대처'의 하위 행동방식인 '부부의 의사결정방식' 역시 조절변수라고 설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은, '일-가족 갈등'에 의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그 보다는 부부의 문화와 가치관, 권력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가족 내에서 누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가의 문제를 부부권력의 문제라고 인식하였던 Blood & Wolfe(1960)의 선구적인 연구 이래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을 부부권력 및 부부관계의 형평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바라보는 선행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에 입각하여, 연구모형을 도표화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표1> 참조)

표1. 연구모형



제2절 연구가설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의하면, 직장과 같은 외부로부터 초래되는, 혹은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처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적응의 수준은 달라진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이라는 ‘대처자원’으로서 기능한다면 이는 ‘일-가족 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요인과 삶의 질(‘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완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음의 가설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일-가족 갈등’(WFC)은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가설1.1 ‘일-가족 간섭’(WIF)은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가설1.2 ‘가족-일 간섭’(FIW)은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가설2.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족 갈등’(WFC)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약화된다.

가설2.1.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족 간섭’(WIF)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약화된다.

가설2.2.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일 간섭’(FIW)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약화된다.

제3절 변수의 설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가족패널’ 설문지에서 제공하는 ‘결혼생활행복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점=매우 불행하다”에서부터 “10점=매우 행복하다”에 이르는 10단계⁶⁾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⁷⁾.

6) ‘한국여성가족패널’에서는 3차 설문지까지 ‘결혼생활행복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나, 제4차 조사부터 10점 척도로 변경하였다.

7) ‘이 연구에 사용된 척도 중에서 ‘결혼만족도’, ‘일-가족 간섭’(WIF), ‘가족-일 간섭’(FIW) 척도가 리커트 척도이다. 리커트 척도는 ‘서열척도’이지만 ‘등간척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척도의 점수를 0점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절편값 추정이 큰 의미가 없으며, 점수 조정이 분석결과에 유의미한

선행연구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장휘숙(200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첫째, 단일항목 평정척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둘째, 다항목적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결혼생활 적응의 여러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몇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류임량(2009)의 연구처럼 결혼만족도를 단일문항의 10점 평정척도로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일-가족 갈등'(WFC)을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 두 하위척도로 측정하여 독립변수로서 투입하였다. 첫째, '일-가족 간섭'(WIF)은 '한국여성가족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6개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데, 각각의 문항은 '1점=매우 그렇다'에서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단계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일-가족 간섭'(WIF)의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하도록 문항5, 6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 6개 문항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2 참조). 8).

타당도 분석을 위해서 요인분석⁹⁾을 행한 결과, 고유치는 2.504 였으며 분산의 설명력은 41.727이었고 Cronbach's α =.689 였다.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 요인적재치가 낮은 2문항을 제거하여 총4개의 문항으로 척도를 재구성하였으며, 재구성한 척도에 대해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행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재구성한 척도의 고유치는

차이를 주지 않으므로,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8) 한국여성가족패널에서는 3차 설문지까지는 '일-가족 간섭'(WIF)을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4차 설문지부터는 6개의 문항으로 이를 측정하고 있다.
- 9)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다. 변수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사각회전'의 일종인 '직접 오블리민' 회전을 행하였다. 추출 전에는 패턴행렬 값을 기재하였으며 추출 후에는 단일요인이었으므로 성분행렬 값을 기재하였다. '가족-일 갈등', '공동활동빈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행하였다.

표2. '일-가족 간섭'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항목	요인적재치	Cronbach's α
①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779	.689
②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835	
③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 진다.	.855	
④일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617	
⑤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역코딩).	.018	
⑥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역코딩).	.044	
고유치	2.504	
분산의 %	41.727	

표3. 재구성한 '일-가족 간섭'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항목	요인적재치	Cronbach's α
①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800	.760
②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842	
③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 진다.	.865	
④일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576	
고유치	2.428	
분산의 %	60.711	

2.428이었으며, 분산의 설명력은 60.711로 높아졌고 Cronbach's α =.76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둘째, '가족-일 간섭'(FIW)과 관련하여 '한국여성가족패널'에서는 총 5개의 지표를 제공한다. 각각의 문항은 '1점=매우 그렇다'에서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단계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가족-일 간섭'(FIW)의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하도록 문항3, 4, 5는 역코딩하였다. 이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4> 참조).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행한 결과, 고유치는 1.879였으며 분산의 설명력은 37.584였고 Cronbach's α =.521로서 그다지 높지 않았다. 따라서 요인적재치가 낮은 두 개 문항(문항 1,2)을 제거하여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5번 '식구 중에 환자가 있어서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문항의 경우, 환자가 가족 중에 있는 응답자만 응답하였으므로, 빈도분석 결과 총1537사례 중에서 무응답이 717명(46.6%), 응답자가 820명(53.4%)으로 결측치가 너무 많았다. 따라서 이 문항도 분석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거하였다. 따라서 요인적재치가 높은 3, 4번 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만들었다. 이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는 1.617이었으며 설명력은 80.827이었고 Cronbach's α 값은 .762로서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였다(<표5> 참조).

재구성한 '일-가족 갈등'(WFC) 및 '가족-일 간섭'(FIW)은 각각 합산한 뒤 그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결측치는 다른 응답값들의 평균으로 대체하였다.

표4. ‘가족-일 간섭’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항목	요인적재치	Cronbach's α
①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087	.521
②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088	
③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역코딩)	.804	
④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역코딩).	.872	
⑤ 식구 중 환자가 생겨서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역코딩).	.666	
고유치	1.879	
분산의 %	37.584	

표5. 재구성한 ‘가족- 일 간섭’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항목	요인적재치	Cronbach's α
③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역코딩).	.899	.762
④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역코딩).	.899	
고유치	1.617	
분산의 %	80.827	

3) 조절변수

‘한국여성가족패널’에서는 가족 내에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8가지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교육문제/본인취업여부/남편취업여부/본인의 직장이동
남편의 직장이동/투자 및 재산관리/생활비 관리/가족내 여가활동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은 영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비나 자녀교육, 생활재 구입 등에 있어서는 여성이 결정권을 가지는 경향이 더 크고, 부동산이나 승용차 구입이나 외부행사같이 상대적으로 지출이 큰 소비재의 구입의 남성의 결정권이 더 크다고 한다(신화용, 고병은, 2009; 조영숙, 2007; 안승철, 김년희, 1996). 그러므로 많은 연구들이 어느 한 영역만이 아닌, 여러 영역에 대해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렇게 측정된 지표들을 가지고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을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 경향이 있다. 첫째, 각 항목별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결정되며 그 영역에 따라서 동일한 부부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의 응답을 합산하지 않고 분석한다. 위에서 언급한 여성가족패널 보고서(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실태조사보고서(2013), 가족전국가족실태조사보고서(2011),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고서(2013) 등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빈도분석을 행하고 각 영역에 따라서 의사결정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설명할 뿐, 지표들을 합산한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이렇게 조사한 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방식들을 합산하여 부부 의사결정방식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방식도 있다. Blood와 Wolfe(1960)는 남편의 역할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점수들을 합산하여 '상대적 권위'(relative authority)를 산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부가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점수를 합산하여, '권력공유정도'(degree of shared power)를 구한 뒤, 이 두 기준을 가지고, 남편지배형, 아내지배형, 자율형, 융합형의 4가지 의사결정방식을 도출하였다. 우지혜(2014)도 이런 경향을 따르는데, 2010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자녀교육, 재산관리, 생활비 지출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부부가 공평하게 함께 결정'(=3), '대체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결정'(=2), '전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결정'(=1)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 점수를 합산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부부 중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방식의 전반적인 경향성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Blood와 Wolfe(1960)의 '권력공유정도'(degree of shared power)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수준을 점수화하였다.

먼저, 여성가족패널 설문지의 '부부 의사결정' 항목은 '1)본인이 주로, 2)남편이 주로, 3)부부가 함께, 4)다른 가족과 함께, 5)해당없음'의 5가지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5)해당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문항 중에서, 1, 2, 4번 응답은 0번으로 재코딩하였고, 3번 응답은 1번으로 재코딩하였다. 그리고 8개 항목에 대한 개별 점수를 합산하고 이의 평균을 구하여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문항을 합산하여 총점을 구하는 경우에는 결측치가 8문항 중 1문항만 있더라도 그 케이스를 분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부 문항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응답한 문항들

의 평균점을 구하여 이를 대체하였다. 각 문항에 투입한 점수들은 합산한 뒤 평균을 구하였으므로, 0~1점 사이의 분포를 보이게 되며 1점에 가까울수록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통제변수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매우 많으며, 그 변수들 상호간에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 역시 매우 많다. 따라서 통제변수 선택 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수를 결정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변수들은 그 중에서 가급적 한가지만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결혼기간과 연령은 개개의 변수들이 각각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두 변수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이여봉, 2010). 즉 일반적으로 여성의 연령이 높아지면 결혼지속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를 모두 넣지 않고, ‘연령’만을 통제변수로 넣었다. 둘째, 여러 유사한 변수들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선정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부부의 노동시간, 부부가 가사 및 육아에 사용하는 시간(주중/주말), 가사 참여 시에 담당하는 일 등의 다양한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절대적인 가사 참여 시간과 참여량 보다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사분담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서 이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유계숙, 2010). 마찬가지로 부부의 공동활동 역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결과에 의거하여 빈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이여봉, 1999).

① 기혼여성의 연령: 조사시점에서 만 몇세인지를 기준으로 연령을 산정하고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월 부분은 절사하여 연수만으로 나이를 산정하였다(ex: 37세8개월=37세). 여성가족패널에서 가공변수를 만들어 응답자의 연령을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였다.

② 기혼여성/남편의 학력(교육년수) : ‘한국여성가족패널’에서 응답자와 배우자의 학력을 교육년수로 환산한 가공변수를 제공하므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만, 교육년수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할 경우, 우리 사회 대부분의 성인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점수가 위쪽에 집중분포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년수에 ‘자연로그’ 값을 취하여 변환한 뒤, 그 값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③ 가구소득 : ‘한국여성가족패널’에서는 가구소득을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급여액, 이전소득, 기타소득(보험금, 퇴직금, 증여, 상속 등)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들 중에서 사회보험 수령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액을 6개월 총소득으로 환산한 ‘가구 총소득 변수’를 패널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였다. 최저소득자와 최고소득자 간에 소득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자연로그’ 값을 취하여 변환한 값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④ 직업의 종류 : ‘여성가족패널’에서 제공하는 응답자의 ‘일자리 종류’ 변수에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를 ‘사무·전문직’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이외의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를 ‘서비스·기능직’으로 범주화하였다. ‘사무·전문직’ 종사자를 ‘1’로 재코딩하고, ‘서비스업·기능직 종

사자'를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화한 뒤 분석하였다.

⑤ 남편의 일자리 유무 : 남편의 일자리 유무는, 현재 가구 소득 중 아내 소득의 비중, 즉, 아내의 경제적 책임 정도를 알 수 있는 간접지표임은 물론, 현재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남편의 일자리가 없으면 0으로, 있으면 1로 더미변수화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⑥ 종교유무 : '한국여성가족패널'에서는 유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개신교), 천주교(카톨릭), 종교없음, 기타종교의 7가지 문항으로 종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무교인 경우는 0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1로 재코딩하였다. 종교별 차이는 계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교별로 다른 값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⑦ 주관적 건강 : '한국여성가족패널'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1점 = 매우 좋다'부터 '5점=매우 나쁘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고 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아지도록 역코딩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⑧ 부부의 공동활동빈도 : '한국여성가족패널'에서는 5개 항목(공연 등 관람, 운동, 봉사활동, 시댁방문, 친정방문)에 대해서 부부의 공동활동빈도를 조사하고 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빈도수는 '한달에 한번도 안했다', '한달에 한번', '2주에 1번정도', '일주일에 1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환산하여, 월 0회, 1회, 2회, 4회, 8회로 환산하여 재코딩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6. '공동활동빈도'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항목	요인적재치	Cronbach's α
①부부가 같이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 등을 관람하기	.787	.459
②부부가 같이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을 하기	.787	
③부부가 같이 사회봉사 및 공동체 참여 하기	.527	
④부부가 같이 시부모님이나 시댁 형제 들을 만나기	.028	
⑤부부가 같이 친정부모님이나 친정형제 들을 만나기	-.027	
고유치	1.659	
분산의 %	33.185	

표7. 재구성한 '공동활동빈도'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항목	요인적재치	Cronbach's α
①부부가 같이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 등을 관람하기	.840	.538
②부부가 같이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을 하기	.840	
고유치	1.412	
분산의 %	70.623	

5개 원척도에 대해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표6>과 같은데, 모델의 고유치는 1.659, 분산의 설명력은 33.185%였으며, Cronbach's $\alpha = .459$ 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따라서 요인적재치가 0.5 미만인 항목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항목(문항1,2)으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항목에 대해 다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사를 한 결과, 고유치는 1.412, 설명력은 70.623이었으며, Cronbach's $\alpha = .538$ 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다 높아졌다(<표7> 참조).

⑨ 미취학자녀유무 :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 및 육아 부담이 더 커지고 이로 인하여 결혼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를 0, 있는 경우를 1로 재코딩하여, 더미변수를 만들어 모형에 투입하였다.

⑩ 가사분담만족도 : 여성가족패널에서 제공하는 기혼여성의 가사분담만족도 설문지는 '1점 = 매우 만족한다'부터 '5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가사분담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역코딩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제 4 장 연구방법

제1절 분석자료 및 대상

1) 표 본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한국여성가족패널’(KLoWF :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의 제4차년도(2012)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서 1700개의 일반조사구와 300개의 예비조사구를 선정한 후, 2007년 제1차 조사에서 9,084가구를 추출하여 이 가구에 거주하는 만19세~64세의 여성 10,03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들을 모두 포함한다. 조사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CAPI :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식은 면접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한 후, 컴퓨터(노트북)를 사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조사대상자에게 질문하고 이 응답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조사 설문은 가구용, 여성개인용, 일자리용의 3종류인데 첫째, 가구용 설문지는 주거상태, 가구소득, 소비, 자산과 부채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여성개인용 설문지는 성장과정, 학교생활, 첫직장 경험, 결혼과 부부생활, 가사노동, 출산경험과 자녀, 여가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일자리용 설문지는 현재 취업유무, 직종, 직장특성, 일 만족도, 구직경험, 교육 훈련경험, 모성보호제도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택면 외, 2010).

공개된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최근 데이터는 제4차 조사(2012년) 결과이다. 1차 조사의 원표본가구를 기본으로 하고, 제2차부터 제4차 년도까지 시간이 경과하면서 분가한 가구를 추적조사하였다. 총 대상 가구는 9483가구였으며, 총조사대상자는 조사 대상가구원 중에서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의 여성으로 총11,234명이었다. 조사완료가구는 6737가구이며, 원표본가구(9,068가구)와 비교할 때 표본유지율은 75.2%였다(주재선 외, 2013).

2) 분석대상

데이터는 ‘제4차 여성가족패널’(KLoWF)(2012년) 조사결과를 활용하 되, 다음 세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케이스를 추출하여 분석 데이터를 만들었다.

① 기혼여성 : 조사시점(2012년)에 결혼,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과거 결혼을 하였으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하여 조사시점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여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회고적인 응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② 취업여성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 중에서 현재 취업 중인 경우로 분석범위를 한정한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만 자원봉사 등 비임금 노동자는 제외한다.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어느 경우나 분석대상에 포함한다. 반면에, 현재 구직 중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유는 ‘일-가족 갈등’에 대해서 과거 경험에 기반한 회고적 응답을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건설, 일용직 등 일시적인 근로를 하거나 계절적인 근로(

ex: 농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은 분석대상에 포함한다.

③ 자녀를 둔 여성 :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영유아 및 초/중/고등 학생 자녀가 한명 이상 있는 경우에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자녀가 없거나 성인(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장애/만성질환이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기혼취업여성의 경우, ‘일-가족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미성년 자녀로 인하여 양육 부담을 느끼는 기혼 취업 여성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위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하고 결측치 등으로 인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를 제외하여, 총1537사례를 선별한 후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2절 분석방법

1) 조절회귀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와 이에 대한 부부 ‘의사결정방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조절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에 제3의 변수와 독립변수×제3의 변수로 구성된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제3의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조사하는 분석방법’이라고 정의되며(이학식, 2012), 위계적(hierarchical)인 회귀분석 과정을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조절효과는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지닌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검증하게 된다. 이 때, 두 개의 변수를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든 다음, 이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포함하게 되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해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 VIF 값(variation inflation factor)을 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VIF 값은 10을 경계로 해서, 그 이하면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다(이학식, 2012). VIF 값(variation inflation factor)이 10 이상이어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이를 별도로 기술하고 보고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기술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 VIF 값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이는 투입 변수들의 VIF값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학자들은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방식으로 분석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방법은 '각 케이스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값을 각각의 평균값(mean)으로 차감하고 그 값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평균중심화'를 꼭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평균중심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학식, 2012)도 있지만, '평균중심화' 방법이 다중공선성 문제에 대한 유력한 해법이 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조영일, 2014). 본 연구에서는 조절 회귀분석에서 '평균중심화'를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따르고자 한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 그리고 '의사결정방식'은, 본문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평균중심화'한 변수를 사용한 것이다.

2) 회귀 방정식

다음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행하고자 한다. 첫 단계에서는 먼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기본 모형을 만들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을 각각 모형에 투입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을,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과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들을 순서대로 투입할 것이다. 여기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조절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즉 기울기가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낸다(이학식, 2012). 이 회귀모형을 회귀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서술의 간명화를 위하여 세 번째 단계의 조절변수 투입과 네 번째 단계인 상호작용항의 투입은 통합하여, 하나의 회귀식으로 표시하겠다.

식1. 통제변수 투입 모델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 \beta_7 X_7 + \beta_8 X_8 + \beta_9 X_9 + \beta_{10} X_{10} + \beta_{11} X_{11} + \epsilon$$

Y : 결혼만족도 , α : 상수

X_1 : 가구소득 , X_2 : 교육년수 , X_3 : 연령 , X_4 : 직종 , X_5 : 주관적 건강

X_6 : 가사만족도 , X_7 : 종교유무 , X_8 : 미취학자녀유무 , X_9 : 공동활동빈도 ,

X_{10} : 남편교육년수 , X_{11} : 남편일자리 , ϵ : 오차

식2. 독립변수(WIF, FIW) 투입 모델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 \beta_8 X_8 + \beta_9 X_9 + \beta_{10} X_{10} + \beta_{11} X_{11} + \beta_{12} X_{12} + \beta_{13} X_{13} + \epsilon$$

Y : 결혼만족도 , α : 상수

X_1 : 가구소득 , X_2 : 교육년수 , X_3 : 연령 , X_4 : 직종 , X_5 : 주관적 건강 ,

X_6 : 가사만족도 , X_7 : 종교유무 , X_8 : 미취학자녀유무 , X_9 : 공동활동빈도 ,

X_{10} : 남편교육년수 , X_{11} : 남편일자리 , X_{12} : 일-가족 간섭(WIF) ,

X_{13} : 가족-일 간섭(FIW) , ϵ : 오차

식3. 조절변수(의사결정방식) 및 상호작용항 투입 모델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 \beta_8 X_8 + \beta_9 X_9 + \beta_{10} X_{10} + \beta_{11} X_{11} + \beta_{12} X_{12} + \beta_{13} X_{13} \\ + \beta_{14} Z_1 + \beta_{15} (X_{12} \cdot Z_1) + \beta_{16} (X_{13} \cdot Z_1) + \epsilon$$

Y : 결혼만족도 , α : 상수

X_1 : 가구소득 , X_2 : 교육년수 , X_3 : 연령 , X_4 : 직종 , X_5 : 주관적 건강 ,

X_6 : 가사만족도 , X_7 : 종교유무 , X_8 : 미취학자녀유무 , X_9 : 공동활동빈도 ,

X_{10} : 남편교육년수 , X_{11} : 남편일자리 , X_{12} : 일-가족 간섭(WIF) ,

X_{13} : 가족-일 간섭(FIW), Z_1 : 의사결정방식, $X_{12} \cdot Z_1$: 상호작용항1 ,

$X_{13} \cdot Z_1$: 상호작용항2 , ϵ : 오차

제 5 장 분석결과

제1절 빈도분석

표본 1537명에 대해서 결혼만족도 및 인구사회학적 범주에 대해 빈도분석을 행한 결과는 아래의 <표8>과 같다.

첫째, 대상집단의 결혼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평균점수는 6.86 점이었고 표준편차는 1.53점이었다.

다음으로 대상집단의 총소득은 5,080만6천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2,602만5천원으로 가구 소득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90명(5.9%)이었고, 4,0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541명(35.2%)이었으며 6,0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542명(35.3%)이었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70.5%인 1083명이 2000~4000만원 소득구간에 속해있었다. 8,0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은 216명(14.1%)이었고 8000만원 초과라고 응답한 경우는 148명(9.6%)였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최소 소득자가 보고한 소득은 300만원이었고, 최고소득자는 2억7,100만원이었다.

교육년수는 평균 13.3년이었으며 표준편차는 2.24이었다. 즉, 응답자의 상당수가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6년 등 총12년 이상의 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이하까지만 교육받았다는 응답은 17명(1.1%)이었지만 그 수가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중학교 이하까지 교육받았다는 응답이 65명(4.2%)이었고, 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 이하까지 교육받았다는 응답이 738명(48.0%)으로 가장 많았다. 4년제 이하의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669명(43.6%)이었다.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48명(3.2%)이었다.

연령은 30세 이하가 36명(2.3%), 31-40세 이하가 635명(41.3%)이었으며, 41-50세 이하가 802명(52.2%)으로 가장 많았다. 51-60세 이하도 62명(4.0%)이 있었으며, 61세 이상도 2명(0.1%)이 있었다. 평균 연령은 41.2세였으며 최연소자는 22세, 최고령자는 62세였다.

표8. 빈도분석표(1)

구분	수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상자수	1537					
결혼만족도			6.86	1.53		
소득			5080.6	2602.5	300	27100
~2000만원	90	(5.9)				
~4000만원	541	(35.2)				
~6000만원	542	(35.3)				
~8000만원	216	(14.1)				
8000만원 ~	148	(9.6)				
교육(=년수)			13.33	2.24	0	22
~초등학교	17	(1.1)				
~중학교	65	(4.2)				
~고등학교	738	(48.0)				
~대학교	669	(43.6)				
대학원~	48	(3.2)				
연령			41.22	5.422	22	62
~30세	36	(2.3)				
31~40세	635	(41.3)				
41~50세	802	(52.2)				
51~60세	62	(4.0)				
61세 ~	2	(.1)				

다음으로 직종, 종교, 주관적 건강 등 다른 특성들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9>에 정리한 바와 같다. 먼저, 직종의 경우, 서비스 및 농업 임어업, 노무, 기능직은 848명(55.2%)이었고 관리직 및 전문직, 사무직은 689명(44.8%)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균점은 3.77이며 표준편차는 0.69로 나타났다. 응답 중 건강이 '매우 나쁘다'가 5명(0.3%)이었고, '조금 나쁜 편이다'가 48명(3.1%), '보통이다'가 477명(31.0%)이었으며 '대체로 좋은 편이다'가 858명(55.8%)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매우 좋다'는 의견은 149명(9.7%)이었다.

'가사분담만족도'의 평균은 3.14며 표준편차는 0.95로 나타났다. '가사분담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에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7명(5.7%)이었으며,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가 260명(16.9%)이었고, '보통이다'가 606명(39.4%)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대체로 만족한다'가 513명(33.4%), '매우 만족한다'가 71명(4.6%)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 있어서는 '없다'는 응답이 724명(47.1%)이었고, '있다'는 응답이 813명(52.9%)으로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다.

대상집단 중에서 미취학 자녀가 없다는 응답이 1,138명(74.0%)으로,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수는 399명(26.0%)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공동활동은 월 1.71회였으며 표준편차는 2.67 이었다. 부부 공동활동빈도의 최소값은 0회였으며, 최대값은 16회였다.

남편의 교육년수는 평균 13.8년이었으며 표준편차는 2.46이었다. 여성응답자와 마찬가지로 남성 응답자의 상당수가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6년 등 총12년 이상의 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이하까지만 교육받았다는 응답은 23명(1.5%)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이하까지 교육받았다는 응답이 56명(3.6%)이었고, 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 이하까지 교육받았다는 응답이 621명(40.5%)이며 4년제 이하의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769명(50.0%)로 가장 많았다.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60명(4.5%)이었다.

남편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129명(9.2%), ‘있다’는 응답이 1,279명(90.2%)으로 대부분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일-가족 간섭’(WIF)의 평균 점은 1.97이었고 표준편차는 .44였으며, ‘가족-일 간섭’(FIW)의 평균 점은 2.48이고 표준편차는 .68로 ‘일-가족 간섭’(WIF)보다 ‘가족-일 간섭’(FIW)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방식’은 0~1 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점에 가까울수록 부부 공동의사결정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평균값은 .41이었으며, 표준편차는 .37이었다.

표9. 빈도분석표(2)

구분	수	(%)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대상자수	1537					
직 종						
서비스직 및 농림어업,노무직	848	(55.2)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689	(44.8)				
주관적 건강			3.77	0.69		
매우 나쁘다	5	(0.3)				
조금 나쁜편이다	48	(3.1)				
보통이다	477	(31.0)				
대체로 좋은편이다	858	(55.8)				
매우 좋다	149	(9.7)				
가사분담만족도			3.14	0.9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7	(5.7)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60	(16.9)				
보통이다	606	(39.4)				
대체로 만족한다	513	(33.4)				
매우 만족한다	71	(4.6)				
종교유무						
없다	724	(47.1)				

	있다	813	(52.9)				
미취학자녀							
	없다	1138	(74.0)				
	있다	399	(26.0)				
부부공동활동				1.71	2.67	0	16
남편교육년수				13.76	2.46	0	22
	초등학교	23	(1.5)				
	중학교	56	(3.6)				
	고등학교	621	(40.5)				
	대학교	769	(50.0)				
	대학원 이상	60	(4.5)				
남편일자리							
	없다	129	(9.2)				
	있다	1279	(90.8)				
일-가족 간섭(WIF)				1.97	.44		
가족-일 간섭(FIW)				2.48	.68		
의사결정방식				.41	.37		

제2절 상관관계분석

조절회귀분석에 앞서서,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변수들과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SPSS 22.0을 사용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어슨 상관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여 각 변수들을 비교하였다(<표10> 참조)¹⁰⁾.

먼저, 통제변수들과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검토할 때 ‘다중공선성’을 의심할만한 변수들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피어슨 상관관계수의 값이 .8을 넘을 경우, 변수들 간의 강한 상관관계로 인하여 ‘다중공선성’을

10) 일반적으로 피어슨 상관관계수는 .70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석하며 .90 이상일 경우에는 양 변수 간의 높은 관계로 인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의심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그런 값들은 없었으며, 다만 통제변수들 중에서 몇몇 변수들의 상관관계 계수 값이 다소 높았다. 첫째, 여성의 교육년수와 직종 사이의 피어슨 상관관계수 값은 $r=.469$ 이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이 두 변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여성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직군인 경향이 높았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교육년수와 남편의 교육년수 사이에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두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수 $r=.558$ 이었고, 이는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여성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교육정도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남성 배우자의 교육정도는 아내의 사무, 전문직종 여부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404$, $p<.01$).

둘째, 여성응답자의 연령과 미취학 자녀 유무의 피어슨 상관관계수 $r=-.598$ 이었고 이는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만혼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애주기로 보았을 때 결혼연령은 20~30대에 집중된다. 또한 결혼주기로 봤을 때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은 대개 결혼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런 경향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¹⁾.

반면에, 독립변수로 투입되는 '일-가족 간섭'(WIF) 변수와 '가족-일

11) 초기모형에서는 남편의 연령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상관분석 결과, 여성응답자의 연령과 남편 연령 사이의 피어슨 상관관계수 $r=.868$ 이었으며,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렇게 여성응답자와 남편의 연령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VIF값을 비교하였다. 여성응답자 연령의 VIF값은 회귀모형들에 따라서 약 4.5 근방이었으며, 남편 연령의 VIF값은 약 4.4 근방이었다. 일반적으로 VIF값은 10을 기준으로 다중공선성을 판정하므로, 이 경우에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1점대인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VIF값이 현저히 높았다. 또한 남편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넣고 결혼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비표준화 계수 $B=.004$ (표준화 계수 $\beta=.016$)으로 유의수준 $p<.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VIF값이 크면서도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약한 남편의 연령을 통제변수에서 제거하였으며, 이후 여성응답자 연령은 모형에 따라 약 1.7 근방의 VIF값을 보여 다른 변수들의 VIF값과 유사하였다.

간섭'(FIW) 변수 간의 상관계수 $r=.080$ ($p<.01$)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 두 변수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하여 모형에 투입하였으므로, 상관분석에서도 평균중심화한 변수들을 사용한 분석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은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을 분리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여러 선행연구(Amstad et al., 2011; Cao, 2011)들이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와 '조절변수'인 '의사결정방식'과의 피어슨 상관계수 $r=.162$ ($p<.01$)로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일-가족 간섭'(WIF)과 '의사결정방식'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 $r=-.049$ 이었고, '가족-일 간섭'(FIW)과 '의사결정방식'의 피어슨 상관계수 $r=-.022$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의사결정방식' 변수는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변수를 회귀모형에 투입하였으므로, 상관관계 분석 역시 평균중심화한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10. 피어슨 상관계수표

	1	2	3	4	5	6	7
1.결혼만족도	1						
2.소득	.223**	1					
3.교육년수	.154**	.338**	1				
4.연령	-.127**	-.019	-.234**	1			
5.직종	.111**	.302**	.469**	-.225**	1		
6.주관적건강	.129**	.132**	.120**	-.171**	.088**	1	
7.가사만족도	.284**	.116**	.110**	-.095**	.111**	.091**	1
8.종교유무	.031	.009	.025	.159**	.020	-.033	.044
9.미취학자녀	.076**	-.009	.195**	-.598**	.188**	.077**	.065*
10.공동활동	.213**	.192**	.209**	-.089**	.211**	.105**	.218**
11.남편교육	.124**	.337**	.558**	-.140**	.404**	.088**	.093**
12.남편일자리	.066*	.077**	.036	-.076**	.022	.092**	.051*
13.일-가족간섭 (WIF)	-.184**	-.145**	-.068**	.049	-.113**	-.041	-.130**
14.가족-일간섭 (FIW)	-.072**	-.010	.017	-.172**	.012	.013	-.078**
15.의사결정방식	.162**	.072**	.052*	.019	.040	.065*	.154**
16. 상호작용1	.054*	-.004	-.047	.001	-.026	-.030	.025
17. 상호작용2	.023	.014	.001	.065*	.050	.019	.023

8	9	10	11	12	13	14	15	16
1								
-.042	1							
.045	.013	1						
.053*	.110**	.223**	1					
-.001	.044	.025	.040	1				
-.015	-.024	-.114**	-.077**	.035	1			
.012	.211**	-.068**	.001	.033	.080**	1		
.000	.007	.124**	.045	.037	-.049	-.022	1	
.016	.001	-.053*	-.020	-.024	-.009	.034	-.053*	1
.047	-.030	-.003	.018	-.094**	.033	.017	-.065*	.092**

*: P<.05, **: P<.01

제3절 회귀분석

1) '일-가족 갈등'(WFC)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표11>에서 <모델1>은 종속변수에 '결혼만족도'를 넣고, 연령, 교육년수, 소득, 직종, 주관적 건강상태, 남편 교육년수 등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첫째, 가구소득은 '결혼만족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구소득의 비표준화 계수 $B=.505$ (표준화 계수 $\beta=.161$)로, 이는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다른 변수들을 고정하고 가구소득이 1%만큼 증가하였을 때, 기혼취업여성의 결혼만족도는 .00505만큼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¹²⁾

둘째, 기혼취업여성의 교육정도는 결혼만족도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 기혼취업여성의 비표준화 계수 $B=.306$ (표준화계수 $\beta=.039$)이었는데, 통계적으로 $p<.10$ 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의 연령과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연령의 비표준화 계수 $B=-.022$ (표준화 계수 $\beta^{13})=-.07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기서 연

12) '여성가족패널'에서 제공하는 '소득'과 '교육년수'는 '자연로그'를 취하여 변환하였다. 독립변수가 자연로그일 때, 회귀계수 값이 B라면 독립변수가 1%만큼 증가할 때,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가 $B/100$ 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비표준화 계수(B)는 측정단위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계수를 표준화해야한다. 표준화된 계수(Beta)는 각 계수를 Z점수로 표준화하여 평균 0, 표준편차 1이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따라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때) 어떤 변수의 표준화 계수 절대값이 다른 변수보다 더 크다면, 이는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립변수의 표준화 계수 β 는 다른 변수들을 고정하고 독립변수를 1표준편차만큼 증가시킬 때, 종속변수는 표준편차의 β 배만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령의 표준화 계수 $\beta = -.079$ 로, 이는 다른 변수들을 고정하고 연령을 1 표준편차만큼 증가시킬 때, 결혼만족도는 표준편차의 .079배만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기혼취업여성의 직종과 결혼만족도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 노무, 서비스, 농업직에 종사하는 여성집단을 기준으로 사무, 관리,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집단을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B = -.087$ (표준화 계수 $\beta = -.028$)이었지만 통계적으로 $P < .10$ 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섯째, '주관적 건강' 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더 좋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건강의 비표준화 계수 $B = .129$ (표준화 계수 $\beta = .058$)로, 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본인이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결혼만족도'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 번째, 기혼취업여성이 남편에게 느끼는 가사분담만족도의 비표준화 계수 $B = .363$ (표준화 계수 $\beta = .224$)이었고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기혼취업여성이 남편에게서 느끼는 가사분담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일곱 번째, 여성의 종교 유무는 결혼만족도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을 기준으로 종교를 가진 집단을 비교하였는데, 비표준화 계수 $B = .090$ (표준화 계수 $\beta = .029$)이었지만 유의수준 $p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덟 번째, 미취학 자녀 유무의 비표준화 계수 $B = .029$ (표준화 계수 $\beta = .008$)로 유의수준 $p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미취학 자녀 유무는 결혼만족도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투입변수를 미취학 자녀수로 바꾸어 넣었을 때에도 변하지 않았다.

아홉 번째, 부부의 공동활동빈도는 '결혼만족도'와 긍정적인 상관관

계가 있었다. 공동활동빈도의 비표준화 계수 $B=.068$ (표준화 계수 $\beta=.118$)이었으며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남편 교육년수의 비표준화 계수 $B=-.054$ (표준화 계수 $\beta=-.007$)이었고 유의수준 $p<.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취업여성의 결혼만족도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실직이 경제적으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남편의 일자리 유무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현재 남편이 직업이 없는 집단을 기준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비교하였는데 비표준화 계수 $B=.139$ (표준화 계수 $\beta=.026$)이었지만 유의수준 $p<.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남편의 일자리 유무와 ‘결혼만족도’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취업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가구소득은 결혼만족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교육정도나 직종, 종교 등은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인구학적 배경에 있어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연령과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주관적인 건강 수준 역시 결혼만족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결혼만족도 역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넷째, 미취학 자녀 유무, 그리고 미취학자녀수는 결혼만족도와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 다섯째, 부부관계 영역에 있어서, 부부의 공동활동빈도와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아내의 만족도는 결혼만족도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여섯째, 남편 관련 변수인 교육년수, 일자리 유무 등은 결혼만족도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

다음으로 <모델2>는 <모델1>에 ‘일-가족 갈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일-가족 갈등’이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일-가족 갈등’의 두 하위변수인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은 상호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므로 함께 모형에 투입하였다¹⁴⁾. 변수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족 갈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점수가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첫째, ‘일-가족 간섭’(WIF)의 비표준화 계수 $B = -.382$ (표준화 계수 $\beta = -.114$)였고, 이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일-가족 간섭’(WIF)이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양 변수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가족-일 간섭’(FIW)의 비표준화 계수 $B = -.129$ (표준화 계수 $\beta = -.058$)이었으며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일 간섭’(FIW)이 커질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하므로, 이 두 변수 간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은 모두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Adjusted- R^2 값과 F값을 모형별로 비교해보았다. <모델2>의 Adjusted- R^2 값은 .157로 통제변수만 넣었을 때인 <모델1>의 Adjusted- $R^2 = .141$ 에 비하여 설명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은 <모델1>에서 23.971이었고, <모델2>에서는 22.980이었으며, 두 모델에서 모두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값의 유의확률로 회귀모형의 기본적인 귀무가설($H_0 : \beta_1 = \beta_2 = \beta_3 = \dots = \beta_k = 0$)의 기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모델에서 F 통계량은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2) ‘부부 의사결정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14) ‘일-가족 간섭’(WIF)와 ‘가족-일 간섭’(FIW) 변수는, ‘의사결정방식’과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었을 때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평균중심화’ 후 VIF 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투입변수에서 VIF 값은 2 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11>의 <모델3>은 ‘일-가족 갈등’(WFC)과 ‘결혼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부부 의사결정방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먼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들을 투입한 <모델2>에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결혼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¹⁵⁾ 다음단계로는 독립변수들인 ‘일-가족 간섭’(WIF)과 ‘의사결정방식’의 상호작용항(‘상호작용1’)과 ‘가족-일 간섭’(FIW)과 ‘의사결정방식’의 상호작용항(‘상호작용2’)을 투입하여, 독립변수인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그 방향과 강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의사결정방식’을 조절변수로 투입한 결과, 비표준화 계수 $B=.481$ (표준화 계수 $\beta=.104$)이었고,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부부의 공동의사결정과 결혼만족도는 강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독립변수인 ‘일-가족 간섭’(WIF)과 조절변수인 ‘의사결정방식’의 상호작용항인 ‘상호작용항1’의 비표준화 계수 $B=.616$ (표준화 계수 $\beta=.062$)이었고, 이는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조절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 기울기가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를 환언하자면, 독립변수인 ‘일-가족 간섭’(WIF)의 비표준화 계수 $B=-.377$ (표준화 계수 $\beta=-.113$)이었고 이는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일-가족 간섭’(WIF)은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이 ‘결혼만족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 즉 양수값을 가지고 있고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

15) 조절변수인 ‘의사결정방식’은, 독립변수인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 변수와 ‘상호작용항’을 만들어서 모형에 투입할 때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변수들을 ‘평균중심화’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평균중심화 후 VIF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변수들의 VIF 값은 2 미만으로서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로, 상호작용항에 의해서 독립변수인 '일-가족 간섭'(WIF)의 회귀계수 값이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른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을 때 조절변수인 '의사결정방식'이 0.1 단위 증가할 때, '일-가족 간섭'(WIF)의 기울기는 -.377에서 .0616만큼 양(+의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방식'은 '일-가족 간섭'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가족-일 간섭'(FIW)의 비표준화 계수 $B = -.136$ (표준화 계수 $\beta = -.061$)이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가족-일 간섭'(FIW)과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가족-일 간섭'(FIW)과 '의사결정방식'의 상호작용항인 '상호작용항2'는 비표준화 계수 $B = .202$ (표준화 계수 $\beta = .031$)이므로, '상호작용항1'과 마찬가지로 계수값이 양수였다. 하지만 이는 유의수준 $p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작용항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방식이 조절효과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회귀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Adjusted- R^2 값과 F 값을 모형별로 비교하였다.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델1>에서 Adjusted- $R^2 = .141$, $F = 23.971$ ($P < .001$)이었다. 그러나 독립변수인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을 투입한 <모델2>의 Adjusted- $R^2 = .157$, $F = 22.980$ ($P < .001$)이었고 여기에 '의사결정방식'을 조절변수로 투입한 <모델3>에서의 Adjusted- $R^2 = .170$, $F = 20.628$ ($P < .001$)이었다.

먼저, Adjusted- R^2 값은 <모델1>에서 .141이었는데, <모델2>에서는 .157로, 그리고 <모델3>에서는 .170으로 높아져서,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값은 <모델1>에서 23.971이었고, <모델2>에서는 22.980이었으며, <모델3>에서는 20.628이었다. 세 모델이 모두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회귀분석에서의 기본적인 귀무가설($H_0 : \beta_1 = \beta_2 = \beta_3 = \dots = \beta_k = 0$)을 기각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작용1’(의사결정방식×일-가족 간섭)은 회귀계수 값이 양수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므로 ‘일-가족 간섭’(WIF)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완충하는 조절변수로 기능하고 있다.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조절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이는 곧 독립변수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일-가족 간섭’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 강도가 상호작용항에 의해서 보다 작아지게 된다. 그러나 ‘상호작용2’(의사결정방식×가족-일 간섭)는 회귀계수 값이 양수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족-일 간섭’(FIW)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11.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모델1			모델2			모델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상수)	1.000	.897		.1363	.891		.1689	.888	
소득	.505 ***	.082	.161	.468 ***	.082	.149	.454 ***	.082	.145
교육년수	.306	.241	.039	.328	.239	.042	.344	.237	.044
연령	-.022 *	.009	-.079	-.023 **	.009	-.081	-.025 **	.009	-.090
직종	-.087	.086	-.028	-.112	.086	-.036	-.116	.085	-.038
주관적건강	.129 *	.054	.058	.126 *	.053	.057	.117 *	.053	.053
가사분담만족도	.363 ***	.040	.224	.337 ***	.040	.207	.309 ***	.040	.190
종교유무	.090	.074	.029	.094	.074	.031	.093	.073	.030
미취학자녀	.029	.104	.008	.065	.104	.018	.053	.103	.015
공동활동빈도	.068 ***	.015	.118	.062 ***	.014	.107	.059 ***	.014	.102
남편교육년수	-.054	.215	-.007	-.060	.213	-.008	-.066	.212	-.009
남편일자리	.139	.125	.026	.178	.124	.034	.188	.124	.036
WIF				-.382 ***	.080	-.114	-.377 ***	.080	-.113
FIW				-.129 *	.054	-.058	-.136 *	.054	-.061
의사결정방식							.481 ***	.110	.104
상호작용1							.616 **	.234	.062
상호작용2							.202	.152	.031
Adjusted- R^2	.141			.157			.170		
F	23.971***			22.980***			20.628***		

종속변수 : 결혼만족도

†: P <.10, *: P<.05, **: P<.01, ***:P<.001

제 6 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에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이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것이다. ‘가족-스트레스’이론에 의하면, 직장이나 가족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은 부부관계 혹은 가족관계로 전이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부부가 어떤 대처자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적응의 수준이 달라진다. 특히, ‘일-가족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부부공동대처’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자료로는 ‘여성가족패널’(KLoWF :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의 제4차년도(2012)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을 선별하고, 결측치 등으로 표본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여 총1537케이스를 선별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으로는 첫째, 독립변수로 ‘일-가족 갈등’(WFC)을 설정하였다. 이 개념은 ‘일-가족 간섭’(WIF:work interference with family)과 ‘가족-일 간섭’(FIW:family interference with work)의 두가지 하위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종속변수는 ‘결혼만족도’로 설정하였는데 이 척도는 여러 선행연구들에 있어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져 왔다. 셋째, ‘조절변수’는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이다. Blood & Wolfe(1960)의 연구에서 ‘권력공유정도’(degree of shared power)를 산출한 방식을 차용하여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수준을 점수화하였다. 먼저, 재산투자, 본인취업, 남편취업, 본인이직, 남편이직, 여가, 생활비, 자녀 교육 등 8개 영역에서 누가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조사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재코딩하였다. 그리고 8개 영역의 점수들을 합산한 후 평균을 구하여 ‘공동의사결정’ 수준을 점수화하였다. 넷째 통제 변수로는 가구소득, 학력, 연령, 직업종류,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미취학자녀유무, 가사분담만족도, 부부의 공동활동빈도, 남편학력, 남편일자리 유무를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위계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종속변수로 결혼만족도를, 독립변수로는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기본모형을 설정하였다. 첫번째 분석에서는 독립변수로 ‘일-가족 갈등’의 두 하위 척도인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두번째 분석에서는 이 모형에, 조절변수인 ‘의사결정방식’, 그리고 조절변수와 독립변수들과의 상호작용항인 ‘상호작용항1’(의사결정방식×일-가족 간섭)과 ‘상호작용항2’(의사결정방식×가족-일 간섭)를 추가로 투입하여, ‘의사결정방식’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위 모형을 분석한 결과, 첫째,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은 둘 다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표12참조). 먼저 ‘일-가족 간섭’(WIF)의 비표준화 계수 $B = -.382$ (표준화 계수 $\beta = -.114$)이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일 간섭’(FIW)의 비표준화 계수 $B = -.129$ (표준화 계수 $\beta = -.058$)으로서 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2 . WIF와 FIW,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모델2					
변수	B	S.E	beta	Adjusted- R^2	F
WIF	-.382***	.080	-.114	.157	22.980***
FIW	-.129*	.054	-.05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둘째, 이 모형에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을 조절변수로 넣었을 때, ‘일-가족 간섭’(WIF) 영역에 대해서 ‘의사결정방식’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일-가족 간섭’(WIF)의 비표준화 계수 $B = -.377$ (표준화 계수 $\beta = -.113$)이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일-가족 간섭’(WIF)과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조절변수인 ‘의사결정방식’의 비표준화 계수 $B = .481$ (표준화 계수 $\beta = .104$)이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상호작용항1’(의사결정방식×일-가족 간섭)의 비표준화 계수 $B = .616$ (표준화 계수 $\beta = .062$)이었으며 이는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독립변수는 음수(-)의 계수값을 가지지만 상호작용항은 양수(+)의 계수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므로, ‘의사결정방식’은 ‘일-가족 간섭’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충하는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일 간섭’(FIW) 영역에 대해서는 조절변수인 ‘의사결정방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가족-일 간섭’(FIW)의 비표준화 계수 $B = -.136$ (표준화 계수 $\beta = -.061$)이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므로 ‘가족-일 간섭’(FIW)과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일-가족 간섭’(WIF)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일-가족 간섭’(WIF)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비해서는 그 강도가 약하였다. 이에 대해서, 조절변수인 ‘의사결정방식’은 ‘일-가족 간섭’(FIW)의 경우와 같고 ‘상호작용항2’(의사결정방식×가족-일 간섭)의 비표준화 계수 $B = .202$ (표준화 계수 $\beta = .031$)이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의사결정방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표13. WIF와 FIW, 의사결정방식,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모델2					
변수	B	S.E	beta	Adjusted- R^2	F
WIF	-.377***	.080	-.113	.170	20.628***
FIW	-.136*	.054	-.061		
조절변수 (의사결정방식)	.481***	.110	.104		
상호작용항1	.616**	.234	.062		
상호작용항2	.202	.152	.031		

†: P <.10, *: P<.05, **: P<.01, ***:P<.001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 ‘일-가족 갈등’(WFC)은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 귀무가설 기각

가설1.1 ‘일-가족 간섭’(WIF)은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 귀무가설 기각

가설1.2 ‘가족-일 간섭’(FIW)은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 귀무가설 기각

가설2.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족 갈등’(WFC)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약화된다.

가설2.1.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족 간섭’(WIF)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약화된다 : 귀무가설 기각

가설2.2.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일 간섭’(FIW)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약화된다 : 대립가설 기각

‘연구가설1’에서는 하위가설인 가설1.1과 가설1.2에 대해서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가설2’에서는 두 개의 하위가설 중에서 가설2.1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지만, 가설2.2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제2절 해석 및 함의

1) 연구결과 해석

첫째, 국내외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혼 취업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일-가족 갈등’은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일-가족 간섭’(WIF)만이 아니라 ‘가족-일 간섭’(FIW)에 있어서도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갈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Frone et al.(1992)의 연구 이래로, 상대적으로 ‘전이(spillover) 이론’에 기반하여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 이론은 ‘일’과 ‘가족’ 영역 중에서 한 영역으로부터 초래된 역할 압력은 그 영역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을 더 많이 투입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여러 후속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가족’ 영역의 결과(outcome)에 대해서는 ‘일’ 영역의 변수들로 설명하고, 반대로 ‘일’ 영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가족’ 영역의 변수들에 기반해 설명해왔다(Li, Lu & Zhang, 2013; Cao, 2011).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Amstad et al.(201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가족 갈등’의 두 가지 측면, 즉 전이(spillover)와 매칭(matching)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결혼만족도’는 한편으로는 ‘일’ 영역으로부터의 역할 압력과 함께, ‘가족’ 영역에서의 역할 압력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두 영역이 모두 ‘결혼만족도’와의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음에도 그 영향력에 있어서 두 영역에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가족 간섭’(WIF)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가족-일 간섭’(FIW)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가족 갈등’에 대한 초기 연구 이래로, 상대적으로 ‘일-가족 간섭’(WIF)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주목해온 여러 선행연구들과 경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둘째,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족 혹은 부부의 삶은 어떤 스트레스 원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가족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Walsh, 1996).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기혼여성이 겪고 있는 ‘일-가족 갈등’에 의해서 ‘결혼만족도’가 일방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가족 혹은 부부가 내·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대처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적응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Randall & Bodenmann, 2009 ; Revenson et al, 2005).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론은 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일-가족 간섭’(WIF)과 ‘결혼만족도’ 간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이라는 대처자원을 조절변수로 투입했을 때, 그 강도가 약해졌으며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Blood & Wolfe(1960)의 고전적인 연구 이래로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은 부부 간 권력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공동의사결정 수준이 높은 가족은 곧 부부간 권력이 보다 평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 관계의 상대적 평등성과 이에 기반한 공동의사결정은 부부간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내·외부로부터 기인하는 가족 문제에 대해서 부부가 적합한 해결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의사결정 수준이 높은 가족 혹은 부부는 그렇지 않은 가족 혹은 부부들과 비교할 때, 가족 내·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서로간에 더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들이 가진 욕구들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가족 자원을 가족 문제에 조용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재

배분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일-가족 간섭’(WIF)이라는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은 부부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며, 공동의사 결정을 행하는 ‘부부공동대처’(dyadic coping)에 의해서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Bodenmann에 의하면 ‘긍정적인 부부공동대처’ 방식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한다(Revenson et al., 2005). 이 중에서 ‘부부가 함께 하는 대처’(common dyadic coping)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인데, 첫째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두 번째는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부부가 함께 하는 대처’는 그것이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던, 감정에 초점을 맞추던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대처 과정에 참여하여 서로 대칭적이거나 상호보완적인 행동을 행하는 것이다. 즉, 부부가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고, 서로 상의하며 정보를 탐색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보다 많은 업무가 배당되고, 실적에 대해 더 큰 압력을 받게 되어서, 기혼취업여성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일’ 영역에 투자해야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때, 부부관계가 보다 평등한 권력관계에 기초해 있을수록, 여성배우자의 ‘일-가족 간섭’(WIF)은 다른 가족, 특히 남성배우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간의 공동의사결정수준이 높을수록, 협의를 통하여 가사나 양육에 있어서 서로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가사 도우미를 활용하는 등 가족 내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과 공동의사결정을 통해서, 부부는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부나 가족은 ‘일-가족 간섭’(WIF)이라는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적인 역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하지만 ‘가족-일 간섭’(FIW)과 ‘결혼만족도’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공동의사결정’이라는 조절변수를 투입했을 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즉, ‘일-가족 간섭’(WIF)과는 다르게 ‘가족-일 간섭’(FIW)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공동의사결정’ 수준이 그 강도를 약화시킬 수 없었다. 이렇게 두 영역에 따라서 조절변수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이유는,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의 서로 다른 특성으로부터 그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일-가족 간섭’이 외부 직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면, ‘가족-일 간섭’(FIW)은 가족관계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미 부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 문제의 발현과정에서 선(先)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부가 함께 의사결정하여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가족전략을 재구성하였음에도 해결할 수 없었던 가족 내의 문제들, 그리고 가족 자원의 재분배나 가족전략 재구성에 실패했던 결과가 ‘가족-일 간섭’(FIW)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에 긴급한 수발이 필요한 중환자가 있는데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서, 공동의사결정을 통하여 자원을 재분배하고 가족역할을 재구성했음에도 ‘가족-일 간섭’(FIW)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반면에 재산투자 실패나 빚보증 등으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가족-일 간섭’(FIW)은 증대되는 반면에 가정 내에 재분배할 수 있는 가용자원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의 취약성(ex:부부 불화), 혹은 부정적인 의사소통방식(ex: 적대적인 언어 사용)과 같은 대처전략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정보의 공유나 정서적인 교감이 어려우며, 공동의사결정과정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내부의 스트레스 요인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거나 둘째, 가용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셋째, 가족관계나 취약하거나 부정적인 의사소통방식 등 대처전략이 합당하지 못하여, ‘공동의사결정’이 자원 재분배나 역할 재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의사결정’을 행하였더라도, ‘가족-일 간섭’(FIW)에 유의미한 완충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웠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이론적 함의

이 연구의 이론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기존 국내 연구에서는 '일-가족 갈등'을 단일한 갈등요인으로 설정하고 연구한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을 두 하위영역인 '일-가족 간섭'(WIF)과 '가족-일 간섭'(FIW)으로 세분화하고, 두 간섭이 모두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두 변수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일-가족 간섭'(WIF)이 '가족-일 간섭'(FIW)보다 상대적으로 더 컸다.

둘째,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이 조절변수로서 기능함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일-가족 갈등'의 하위 영역에 따라서 이 조절효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가족 간섭'(WIF)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이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였지만, '가족-일 간섭'(FIW)에 대해서는 이러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은 '일-가족 간섭'(WIF)처럼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가족내 갈등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가족 내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부 및 가족문제에 있어서, 부부 개인 차원의 대처뿐만 아니라 '부부공동대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가족 갈등'은 부부 중 한사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로 파급되고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갈등에 있어서는 '공동의사결정'과 같은 '부부공동대처'가 문제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일-가족 갈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한편으로는 이 갈등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삶의 질'에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갈등이 어떠한 기제를 통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대처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

근까지 국내에 있어서 ‘일-가족 갈등’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동향은 ‘일-가족 갈등’의 영향요인 및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본인, 배우자, 가족, 직장 등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매개효과나 조절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일-가족 갈등’과 삶의 질 사이에 메카니즘을 밝히는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 연구 역시, 이런 경향에 발맞추어, ‘일-가족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 영향의 강도나 방향이 변하는지에 대한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처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 개인이 아닌 ‘부부공동대처’(dyadic coping)에 주목하였으며, 부부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의사결정방식’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점이 있다.

3) 실천적 함의

이 연구는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어서 ‘부부공동대처’로서의 ‘공동의사결정’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일-가족 갈등’ 및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실천적인 준거들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위/드림스타트 센터,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러 복지기관에서 부부 대상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실천현장에서 ‘근거기반실천’을 행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동시에, 프로그램 세부내용 기획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에 실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부 대상 프로그램은 대화법과 같은 의사소통방법, 배우자의 심리에 대한 이해, 가족관계 및 부부-자녀관계에 대한 이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부부권력’ 혹은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였다.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을 강화하고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여성

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내부의 강점을 키우고 강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최근에 강점관점이나 역량강화이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강점관점이나 역량강화이론을 실제 사례관리 혹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현장실무자가 대상가족과 함께 협력하여 강점관점과 역량강화이론을 구체화시켜 나아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방법론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 하겠다. 먼저, 방법론적인 측면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취업여성은 동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연령, 학력, 직업, 소득, 혹은 거주지(대도시와 농촌)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일-가족 갈등’의 발생정도, 대처방식, 부부간의 의사결정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령, 교육정도,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더욱 집단을 세분화하여 ‘일-가족 갈등’이 어떻게 본인, 배우자,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각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 중 유자녀 기혼취업여성으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여 제한적인 설명력만을 갖는다.

둘째, ‘일-가족 갈등’이나 ‘결혼만족도’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다양한 가족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혼취업여성에 대한 조사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향후의 후속연구에서 기혼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배우자와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함께 분석한다면, ‘일-가족 갈등’이 가족 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가족 갈등’은 다양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존재하며, 이를 통

해서 본인, 배우자,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들 요인 간에는 중층적인 상호과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모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통합모형이 아닌 ‘일-가족 갈등’, ‘결혼만족도’,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을 주요변수로 단순화하여 모형을 구성하고 분석하였으므로, 여러 변수들 간의 다양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등 보다 정교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 조절효과, 이중매개효과 등을 분석한다면 ‘일-가족 갈등’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조망과 대처방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 그리고,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은 정적인 것이 아니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것이다. 따라서 종단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시점에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단시점 분석으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우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향후에 종단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일-가족 갈등’과 ‘결혼만족도’, 그리고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이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가지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론적인 측면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과거의 ‘일-가족 갈등’ 연구는 주로 ‘일-가족 갈등’으로 인해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배우자의 ‘일-가족 갈등’으로까지 관련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에게 국한하여 ‘일-가족 갈등’을 다루었으나, 향후에는 남성 배우자에게 있어서 ‘일-가족 갈등’이 어떤 영향요인에 의해서 영향받고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며, 그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는 무엇인지를 보다 정치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일’ 영역과 ‘가족’ 영역에서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 두 영역 간에는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최근 ‘축

진'(enhancement)이나 '긍정적 전이'(positive spillover)와 같은 개념이 정립되고 있으며 관련 분석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Wadsworth and Owens, 2007 ; Grzywacz and Marks, 2000). 따라서 향후에는 '일'영역과 '가족'영역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OECD(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

강은진(2012). 여성 소득불평등과 일·가정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이중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금지현, 김동심(2014). 취업모의 직무만족도,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배우자 양육참여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2): 141-150

김미령(2011).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여성연구, 8(2), pp.69~101

김성경(2011). 기혼 취업여성의 특성이 일-가족의 긍정적 전이 및 부정적 전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3(0): 69-94

김승권 외(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안자(2005). 가족 레질리언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영옥(2013).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유경(2013). 생애단계별 여성의 취업행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 199호, 39-56.

김주현, 문영주(2010). 맞벌이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생활 만족과 일만족에 미치는 영향-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강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 109-126

김진희, 한경혜(2002). 남성과 여성의 일,가족 전이와 관련요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11): 55-69

김효민(2010).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중앙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효민, 박정윤(2013).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 본인 및 배우자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1권3호.

류임량(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전이(work-to-family spillover)에 대한 연령계층별 차이 연구. 페미니즘 연구, 9(2), 119-156.

마경희(2008), 맞벌이 가구 젠더체제 유형과 여성의 일-삶 경험의 차이, 가족과 문화, 제20집 1호, 한국가족학회

문영주(2013). 기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에 관한 연구 - 일-가족양립의 긍정적 전이, 비대칭성, 차별적 기능 검증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7(1): 81-102

박은아, 이정우(2005).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의사결정 참여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한국가정관리학회), 23(3): 197-215

박인덕, 한정자, 김노마, 이정자(1987), 여성 직업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종서(2013). 가족내 가사분담과 성역할 인식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실태, 보건복지포럼 2013년 5월호, 보건사회연구원

박태온(1983). 성역할 태도와 결혼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139-150

송진영, 황치정(2013). 직장기혼여성의 부부갈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40), 118-148.

신명숙, 옥경희(2014).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가사분담과 부부공유활동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1): 5-25

신화용, 조병은(2009). 자원 및 부부역할 갈등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과 결혼의 질: 재미교포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269-295

안승철, 김년희(1996). 구매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부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자원문제연구논문집, 15(1): 63-73

여성정책과(2013).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우지혜(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부부평등, 사회적지지, 사회참여 중심으로-,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우현주, 유계숙(2013). 스트레스에 대한 부부공동대처가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2): 51-71

유계숙(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1), 41-69.

윤미현(2013). 기혼여성들의 직장-가정 갈등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수란(2013). 한국 기혼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과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경환, 윤현주(1999). 가족여행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부의 역할구조에 관한 연구. 관광정보연구, 4(0): 1-17

이수아(2011). 의사소통과 부부의 성격강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여봉(1999). 부부간 평등 및 형평인식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1(2) : 47-78

이여봉(2010).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33(1), 103-131.

- 이영지(2011). 기혼여성의 직장-가정 갈등요인이 근로자의 태도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윤석(2010). 취업한 기혼 남녀의 일과 가족 전이 :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의 통합적 접근 , 한국인구학, 33(2), 1-31
- 이은희(200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99-118
- 이정순, 박성연(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권3호, : 175-190
- 이재림, 손서희(2013).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 직장 및 자녀양육 관련 자원과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93-114
- 이정우,강기연(2000), 도시 주부의 공평성 인지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합산적/총체적 측정방법의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 이정우,강기연(2001),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의사결정 참여도 및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9)
- 이주희, 이은희(2000). 맞벌이 부부의 직장, 가정의 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건강심리학회지, 5(2), 287-303
- 이진숙, 신지연(2010). 지역별 기혼여성의 일-가족 양립갈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1(3), 107-132.

이진숙, 최원석(2011). 기혼 직장여성의 일. 아시아여성연구, 50(1), 169-198.

이택면, 김승연, 우원규, 이주영(2009). 제1차 여성가족가족패널 사용자 안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택면, 민현주, 주재선, 김승연, 이주영(2010). 제2차 여성가족패널자료 사용자 안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학식(2012). 사회과학연구를 위한 회귀분석, 집현재

임종호(2014).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 임금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32-143.

장윤옥, 정서린(2012). 가족 및 직업관련 변수가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전이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 30(5): 75-88

장흥근 외(2007).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2007) : 국제비교 맥락에서 본 한국인의 직업의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기택, 정해숙, 김이선, 김영란, 주재선, 김혜영, 손창균, 이재분, 정기선, 황정미, 강민정, 선보영, 최윤정, 주유선, 박건표, 동제연(2013), 2012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정현숙(1996), 부모역할 갈등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가족학논집 8, 43-55

조성은, 정지영, 윤소영(2006). 남성의 직장노동과 가사노동,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4(1) : 129-140

조영숙, 황대용, 이한기(2007). 농가부부의 의사결정 구조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4(2): 373-394

조영일(2014). 회귀분석에서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검증, 2014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조희금, 송혜림, 박정윤, 권티희, 김경화, 김구현, 김혜영, 윤소영, 윤진숙, 이진숙, 정민자(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정은애(2008). 자녀수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의 관계,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조혜선(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7(1), 91-115.

주재선, 문유경, 김영택, 송치선, 박건표, 손창균, 이건정(2013). 2013년 여성가족패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채서일((2013). 사회과학조사방법론(제3판), 비엔엠북스

통계청(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요약

한경미(1995). 기혼취업 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 47-57

한영주, 박지아, 손난희(2013). 기혼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의 관계: 대처 방식과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4(2):

홍성태, 나운봉(2005). 부부간의 구매의사결정 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과 싱가포르 가정간의 비교. *마케팅관리연구*, 10(1): 77-94

황미라(2011).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Allen, T. D., Herst, D. E., Bruck, C. S., & Sutton, M. (2000).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work-to-family conflict: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2), 278.

Amstad, F. T., Meier, L. L., Fasel, U., Elfering, A., & Semmer, N. K. (2011). A meta-analysis of work-family conflict and various outcom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cross-domain versus matching-domain relation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6(2), 151.

Anderson, E. A. (1992). Decision-making style: Impact on satisfaction of the commuter couples' lifestyl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1), 5-21.

Baron, Reubem M., David A, Kenny(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 1173-1182.

- Bartley, Sharon J. , Priscilla W. Blanton & Jennifer L. Gilliard (2005). Husbands and Wives in Dual-Earner Marriages: Decision-Making, Gender Role Attitudes,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Equity. *Marriage & Family Review*, 37(4), 69-94
- Beach, S. R., & Tesser, A. (1993). Decision making power and marital satisfaction: A self-evaluation maintenance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4), 471-494.
- Becker, G.(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Bell, R. A., Daly, J. A., & Gonzalez, M. C. (1987). Affinity-maintenance in marriage and its relationship to women's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5-454.
- Blood Jr, R. O., & Wolfe, D. M. (1960). Husbands and wives: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The free press.
- Bodenmann, G. (2008). Dyadic coping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concept for prevention and therapy. *Zeitschrift für Gesundheitspsychologie*, 16(3), 108-111.

- Bodenmann, G., Meuwly, N., Bradbury, T. N., Gmelch, S., & Ledermann, T. (2010). Stress, anger, and verbal agg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and dyadic cop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7(3), 408-424.
- Bodenmann, G., Ledermann, T., & Bradbury, T. N. (2007). Stress, sex,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Personal Relationships*, 14, 407-425.
- Bowers, Jill R. , Angela R. Wiley , Blake L. Jones , Brian G. Ogolsky & Kathryn Branscomb (2014). Helping Dual-Earner Couples Manage Work-Partner Interferences: A Program Evaluation. *Marriage & Family Review*, 50(1), 55-75
-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64-980.
- Cao, Hui (2011). Work-family interface and outcomes : testing the matching-domain hypothesis in Chinese sampl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Ph.d Dissertation.
- Carroll, Sarah J.,(2012), Couple Communication as a Mediator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Theses and Dessertations.Paper 3347. Brigham Young University.

- Carroll, S. J., Hill, E. J., Yorgason, J. B., Larson, J. H., & Sandberg, J. G. (2013). Couple communication as a mediator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5(3), 530-545.
- Chibucos, T. R., Leite, R. W., & Weis, D. L. (Eds.). (2005). Chapter 5. Social exchange theory, *Readings in family theory*. Sage.
- Coleman, D. H., & Straus, M. A. (1990). Marital power, conflict, and violence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merican couples. In M. Straus & R. Gelles (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pp. 287-304). Sonerset, NJ: Transaction.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 Brody, G. H.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179 - 193.
- Dekkers, Tara D., (2009). Qualitative analysis of couple decision-making. Iowa State university, Graduate Theses and Dissertaton
- Dunifon, R., Kalil, A., Crosby, D. A., & Su, J. H. (2013). Mothers' night work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49(10), 1874.
- Ford, M. T., Heinen, B. A., & Langkamer, K. L. (2007). Work and family satisfaction and conflict: a meta-analysis of

cross-domain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1)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1), 65.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Gutek, B., Searle, S., & Kelpa, L. (1991). Rational versus gender role explan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560-568

Hess, J. (2008).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al stress. ProQuest.

Hill, E. J. (2005). Work-family facilitation and conflict, working fathers and mothers, work-family stressors and support. *Journal of Family issues*, 26(6), 793-819.

Huang, P. (2010).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and Stress. University of California.

- Huang, Y. H., Hammer, L. B., Neal, M. B., & Perrin, N. A.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to-family conflict and family-to-work conflic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5(1), 79-100.
- Kahn, R. L., Wolfe, D. M., Quinn, R. P., Snoek, J. D., & Rosenthal, R. A. (1964). *Organizational stress: Studies in role conflict and ambiguity*. New York: Wiley.
- Karney, Benjamin R.(2010), Keeping Marriages Healthy, and Why It's So Difficult. *Psychological Science Agenda*, February 201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s,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elli A. Saginak and M. Alan Saginak(2005). Balancing Work and Family: Equity,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Family Journal*, 13: 162
- Li, C., Lu, J., & Zhang, Y. (2013). Cross-domain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erformanc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1(10), 1641-1653.
- Liu, H., & Cheung, F. M. (2014). The Moderating Role of Empathy in the Work-Family Crossover Process Between Chinese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69072714547612.

Martin, A.(2013). "Work/family Conflict as a Predictor of Employee Work Engagement of Extension Professionals. "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McCubbin, H. I., Joy, C. B., Cauble, A. E., Comeau, J. K., Patterson, J. M., & Needle, R. H. (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55-871.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Marriage & Family Review*, 6(1-2), 7-37.

McCubbin, H., Olson, D. H., & Patterson, J. M. (1983). Beyond family crisis: Family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1(1), 73-93.

Michel, J. S., Mitchelson, J. K., Kotrba, L. M., LeBreton, J. M., & Baltes, B. B. (2009). A comparative test of work-family conflict models and critical examination of work-family linkag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99-218.

Obradović, J., & Čudina-Obradović, M. (2013). Work Stress and Marital Quality in Dual Earner Couples: A Test of Three Mediation Models. *Društvena istraživanja*, 22(4), 673-691.

- Randall, A. K., & Bodenmann, G. (2009). The role of stress on close relationships and marital satisfac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2), 105-115.
- Rantanen, M., Mauno, S., Kinnunen, U., & Rantanen, J. (2011). Do individual coping strategies help or harm in the work-family conflict situation? Examining coping as a moderator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8*(1), 24.
- Revenson, T. A., Kayser, K. E., & Bodenmann, G. E. (2005). Couples coping with stress: Emerging perspectives on dyadic coping.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ichmond, V. P., McCroskey, J. C., & Roach, K. D. (1997).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styles, power base usage, and satisfaction in marital dyads. *Communication Quarterly, 45*(4), 410-426.
- Rosenbluth, S.C., Steil, J.M. and Whitcomb, J.H. (1998). Marital equality:What does it mean? *Journal of Family Issues, 19* (3), 227-244
- Scanzoni, J.(1982). *Sexual Bargaining:Power Politics in the American Marriage*.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one, E. A., & Shackelford, T. K. (2007). Marital satisfaction. In R. Baumeister & K.Vohs (Eds.), *Encyclopedia of social*

psychology (pp. 541-544). Thousand Oaks, CA:Sage.

Strong, Bryan., & Theodore Cohen(2013),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ence : intimate relationship in a changing society. Cengage Learning.

Walsh, F. (1996).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35(3), 261-281.

Weber, J. G. (2010). Individual and family stress and crises. SAGE Publications.

Wadsworth, L. L., & Owens, B. P. (2007).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work-family enhancement and work-family conflict in the public sec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1), 75-87.

(3) 인터넷 자료

서울경제신문, 2014.7.22.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07/e20140722173450120180.htm>

OECD(2013), Employment Outlook 2013 (Key Employment Statistics)
<http://www.oecd.org/els/emp/howdoesyourcountrycompare-korea.html>

OECD(2013), OECD Better Life Index (Life Satisfaction)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life-satisfaction/>

통계청(2013),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7

Abstract

Examining the decision making style on the association between married female worker's work-family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Park, Ho Ju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cision making style on the association between married female worker's work-family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family-stress theory, stressors from work and family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rital satisfaction. However, the couple's adaptation on the stress depends on their coping resources. In this case, dyadic coping is more effective on dyadic stress.

Thus, many researches have focused on finding the mechanism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then identifying coping resources. In this context, the study's aim is to verify that syncretic decision making as dyadic coping strategy could moderate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his study, Korea Longitudinal Study of Women and Families (KLoWF;2012) of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was used. This study's subject were 1537 married female workers who have children and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 shows, firstly, both the work-family interference with family(WIF) and family-work interference with work(FIW)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rital satisfaction. Secondly,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WIF and marital satisfaction was positively moderated by the decision-making style of each couple, but the moderation effect of the decision making style on FIW and marital satisfac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In this study, it was verified that syncretic decision making is a moderator on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WIF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couple could cope with stress better from the outside because their co-decision could utilize the family resources more efficiently. Thus, syncretic decision-making can be a good coping strategy on WIF.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s, firstly, this study's subject was only married females. The study including male spouses and children would be able to analyze more specifically on multidimensional mechanisms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Secondly, this study used a cross-sectional data to analysis. Further studies utilizing longitudinal data for the

analysis on the time-based interaction will be required.

keywords : married female worker, work-family conflict, marital satisfaction, decision-making style, dyadic coping, moderation

Student Number : 2005-20176